朝鮮日報

財政獨裁案否決로 佛國內閣總辭職

卅一日曉百五十一票의差로 政府提案遂敗北

辭職한 프랑당首相

【電通巴里卅一日午前一時五分發至急報】佛國下院의討論은 三十一日早曉까지及하엿는데 財政獨裁法案에對한 投票의結果 政府는 敗北하야 프랑당內閣은 總辭職하엿다

【電通巴里卅一日發至急報】佛國政府의財政獨裁法案은 三十一日早曉 下院에서 否決되엇는데 票數는 如左하다

反對 三百五十三票 贊成 二百二票

即 百五十一票의 差로 政府는 敗北에 歸하엿다

悲壯한姿態로 프首相下院出席

政府案支持의懇請演說後 現場에서昏倒!

【電通巴里三十日發】프랑당首相은 三十日午後三時四十五分 下院의 形勢不利라고 傳하자 左腕을 繃帶로감고 顏面蒼白한悲痛한모양으로 二人의 醫師에게 扶助를바드며 下院에出席하야 言言句句悲壯한 힘을 너허서 國家의 財政危局을 詳述하고 政府에對한 支持를 懇請하야 如左히 演說하엿다

佛國銀行은 金思惑者에 對抗하야 徹底的으로 法貨暴落防衛하기爲하야 充分한 金을 保有하고잇다 그러나 問題는 百萬法台의 小額이아니오 實로 十億法台로써 算하는것이다 諸君은 現內閣을 瓦解시키더라도 그後繼者에 完全히 權限을與하지안는限 佛國의 財政은 永久히 不安을 免치못할것이다

【電通巴里三十一日發】病軀를무릅쓰고 下院에出席한 프랑당首相은 演說을 終了하자 緊張하엿든맥이풀리어 그자리에 昏倒하엿다 곳 醫師가달려와 注射하야 意識을 回復하엿스나 非常히 疲勢해잇스므로 念慮되고잇다

佛國루大統領 閣員辭表受理

【電通巴里卅一日午前二時發至急報】佛國內閣은三十一日早曉 通貨獨裁法案이 下院에서 否決되자 即時 最後의 閣議를 開하고 總辭職을 決定하야 에리오 無任相이 閣員의 辭表를 一括하야 프랑당首相이 病이기때문에 首相代理로 午前二時半 大統領官邸에 루브랑 大統領을 訪問하고 라발外相外 各閣員若干名과함께 大統領과 會見하야 辭表를 提出하얏다 大統領은 이것을 受理하고 三十一日朝 即時 後繼內閣組織을 爲하야 政界의 巨頭들을 招請할터인데 目下의 形勢로는 第一로는봐손下院議長에게 組閣을交涉하야 承認치안흐면 에리오無任相을 招請할것으로豫想되다

政府財政全權案 下院審議經過內容

【電通巴里三十日發】財政獨裁法案上程의 下院本會議는 三十日午後三時부터 開會하고 劈頭레노드氏가 起立하야 財界恐慌中에 政府의 要求함과如한 獨裁權은 政府에 附與하는것에는 反對이다 나는 平價切下에는 贊成이나 財界恐慌期中에 平價切下를 行하는것은 不可타고생각한다 프랑당內閣이 成立한後 最初에 如斯한 重大全權을 附與하는件은 充分考慮하지안흐면 안되다

라고 먼저反對演說을하엿다 다음 社會黨代表마르엘·레인레氏가 起立하야 同樣으로 現內閣에財政處理의 完全한 權限을與하는것을 拒絕하고 新內閣에 依하야 平價切下를 斷行할것을 主張하얏다 다음프랑당首相이 病軀를 무릅쓰고 別項과如한 演說을하고 首相의 演說後 討論을再開하얏는데 最後에 急進社會黨黨首 에리오氏가 起立하야 政府案支持의 演說을하고 探決한結果

反對 三五三票

贊成 二〇二票

即百五十一票의 大差로서 政府에 獨裁權을 附與하는 法案은 否決되엇다

봐下院議長에 即日組閣委囑

後繼內閣은政爭休戰主義

【巴里三十一日發聯合】프랑당內閣總辭職에接하야 루브랑大統領은 即時 下院議長 페르낭·봐손氏를 에리제宮에 招致하고 後繼內閣組織에着手하야 時局急迫에鑑하야 即日 閣員名簿를 提出하도록 要囑하얏다

【巴里三十日發聯合】루브랑大統領으로부터 後繼內閣組織을 委囑바든 페르낭·봐손下院議長은 에리제宮에서 退出하는同時에深

繭價掛目

◇

蠶繭收穫이가까워왓슴으로 今年에도 繭價의協定을하게되야 三十一日午後에 朝鮮製絲協會에서決定을보리라고한다、沿津初繭市勢는 三十三四掛로 意外의高價를보엇스나 朝鮮에는 協定과共販이라는 特殊한制度 [illegible] 特殊한單位로써 計算하게된 掛目이누구나다아는일이나 掛目의計算과 그方法은養蠶家로서도잘알지못하는이가만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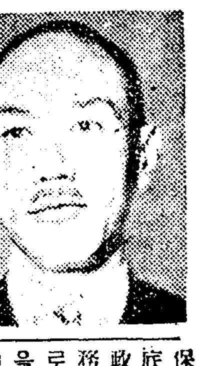
掛目이라함은 生絲市場에서 繭의 繰絲量에따라서 價格을決定하는데쓰는 乘數의稱號이니 簡單히말할때에는 掛라고도한다。그計算法은 [illegible] 로除하면 掛目이나온다。例컨대 生絲市價六百圓、副物及雜收入三十四圓、生産費二百圓、營業利潤五十圓으로 하면

600+34−(200+50)
───── =694−250
16
───── =84
16

即掛目은二十四이다。이때한貫에 一貫匁으로부터 百匁의生絲[illegible] 면二圓六十四錢으로된다。앎기쉽게말하면 掛目이라함은 繭에서取해내어는 生絲의價格이라고생각하면 別差異가업슬것이다。前記方法을쓰지안코、副物其他副産物을 純益으로보아 次式과가티簡單히할수도잇다。[illegible]

河北省政府移轉 一石三鳥的政策

日中關係緩和、舊東北軍閥掃蕩 平津은完全히中央에



【天津三十日發聯合】省政府移轉의 單刀直入的宣告는 蔣介石氏가日本軍의 强硬態度에 鑑하야 이緩和 舊東北軍의 勢力削減、平津의完全한 中央化를 目標로한一石三鳥의 演劇으로보이는데 省政府移轉에繼續하야 北寧兩鐵路沿線 駐屯五十一軍을保定一帶에 移駐시킬터이오 또 特別市制公布에依하야 張學良氏가關內進出以來 築造한 平津의勢力은 總退却할수바게업는狀態에至하엿다 또財政的으로도 省政府는 月額六十萬圓의 收入減이되고 또雜收入減을 加하면 舊東北軍全般의 軍備에도 影響을及하게되다 이리하야 省政府의 保定移轉은 舊東北軍에對하야徹底的打擊을 與하게되고 一方省政府移轉後 平津地方은 北平財務委員會의 直接管下에 너흘터로 軍隊가업는前記地方은 平穩을 維持하고잇스나 現狀에鑑하야 中國人有識者는 天津一帶로부터 軍隊를 撤退하는것을 要望하고잇는터이므로 第五十一軍隊의撤退에依하야 天津三十、中國軍內에는 中國軍(憲兵도包含)을駐屯치아니할것이오 平津一帶의治安維持에는 平津衛戍司令部가이에 當하게할模樣이다 이리하야 從來 于學忠氏가 兵力을 背景으로 여러가지策動을한것도 移駐와同時에 그活動도 鈍하게될것으로 自然天津一帶의 不安은 解消될것으로보인다(寫眞은 蔣氏)

何應欽氏訪問코 酒井參謀長詰問

北中事態責任問題로

【北平三十日發聯合】酒井參謀長은 二十九日午後四時 居仁堂에 何應欽氏를 訪問하고 爆彈宣言을 通達하얏는데 會談의 內容을 聽問하건대 大體如左하다

參謀長 滿洲事變以來 直接觸한 長城線에서 中國軍이 取한態度를 是認하느냐

何應欽 如斯한 問題는 나의關知하는바아니다

參謀長 그러면 蔣介石氏가 指示하느냐

何應欽 蔣介石氏도關知하지안는다

參謀長 兩國關係는 目下 極히 델리케이트한 關係에잇다 如斯한 行動은 兩國關係에 重大影響을 與한다 如斯한 行動에 大體 누가責任을 負하느냐

何應欽(沈默不答)

參謀長 今回의 通告에對하야 特히 回答을 要求하고잇는것은 아니다 이通告를 實行할與否는 貴下의생각이다 나는 이편의 通告順序에 따라 코-스를 進行할뿐이다 우리는부질업시 好事하는 것이아니다 이通告는 世界에 誇示하더라도 부끄럽지안타 이事實에對하야 特히 注意해두기바란다

何應欽(沈默)

參謀長 또一方에는 大使를 交換하면서 一方에서 侮日抗日의 行爲를 進行하는 蔣介石氏의 行動은全혀背信行爲가아니냐 蔣介石氏와 如한 賣國奴를무엇때문에 언제까지 中國에서容恕해두느냐 蔣介石氏를下野시키면 어떠냐

何應欽(沈默不答)

參謀長 아까問題는 蔣介石氏의日本에對한態度가 右나左에決定되면 一切決定될것이다 우리도 左右明確한 明快한回答을要求하는바이다

何應欽氏는 終始沈默不答하고 會談一時間半에終了하엿다

外蒙代表滿洲里着

【電通滿洲里三十日發】滿洲里會議에出席할 外蒙代表는 二十日午前十一時四十五分 滿洲里着國際列車로 入滿하엿는데 外蒙代表는 軍政府次長 산보氏 東邊縣長 단바氏 政府地方司事務官 롱스氏外 隨員五名으로一行이到着하자 滿洲國側 首席代表役陛氏는 驛頭에이를 出迎하야握手를交하엿다

殷同氏歸任前談

【電通東京電話】東洋觀光會議出席次 訪日中인 北寧鐵路局長北中政務整理委員殷同氏는 三十日午後九時半 東京驛發列車로 歸任의途에 올랏는데 同氏는 三十日夜 如左히말하엿다

貴國訪問中 朝野各方面과 會談하엿는데 大體로 好印象을 受하엿다 北中의 和平에 對해서는 日中의 相互信賴에잇다

北平、天津地方도 停戰地區에編入?

不祥事策源地라하야

【電通北平三十一日發】最近中國側의 反日滿策動에 依하야日本軍當局은 停戰協定의 擴大强化의必要를 痛感하고잇서 今後참으로 中國側이 反省하지안는限 結局不祥事의 策源地인北平、天津兩地方을 停戰協定地域內에包含하지안흐면 안된다는意見을가지고잇고 이것은 中國側의識者間에도 相當한 共鳴者를得하엿다

現在와가튼 對敵觀念을排除하는것이 根本問題라고 생각한다 今回의 北中의 事態緊張은 他에도 原因은잇슬터이나 日本側이 對敵觀念으로 北中의 事態에 對한 對策乂는 態度가 너무 嚴重에지나친 感이잇다 于學忠氏의 態度에도 非難할點도 업지는안흘터이나 氏는 日本人의 氣質을 아지못하는 點은잇스나 斷然코 抗日할 人物은아니다

北中國情勢에 米態度至極愼重

【華盛頓三十日發聯合】北中의日本軍當局의 强硬通告에 對하야 外務當局은 刻刻의 情勢의進展에 注意를하고잇스나 모다態度를 極히愼重을 極하야 一切의 批評을 避하고잇서 헐國務長官도緘口不言하고 또 新聞街를 爲始하야 言論界는問題의NRA 前途如何로 喧喧囂囂의 形便이므로 歐洲政局에 對해서도 거의關心을 排할 餘暇가업서 中國問題에關해서도 今日 何等反響을 示하지안는다

省政府移轉코 于學忠罷免? 國民政府事態憂慮

【電通南京三十日發】國民政府는 北中의 事態惡化를極度로 憂慮하야 일을穩便히解決하기爲하야 爲先六月一日부터 河北省政府의 保定移轉에 着手하고 또時機를 보아 事態의責任者인 于學忠氏를罷免하기로 決定한模樣이다 一方蔣介石氏는 本問題에對한態度를 아직明白히 하지안흐나 某消息에依하면 蔣介石氏는 이問題에觸하야 自己의立場을不利케하는것을 憂慮하야 張學良氏로하여금 解決의衝에當케하려는 意向을가진 模樣이다

空軍援助條約 獨逸通告文要旨

五個國空軍制限提議

【倫敦三十日發聯合】西歐空軍協定에關한 獨逸政府의通告文內容은 三十一日의英國下院에서 사이먼外相의報告가잇슬때까지 秘에附하고잇스나 大體의要旨는 如左한것으로보인다

一、英佛獨伊白의五個國은 向後五個年間 그空軍力을制限할것

一、어떤參加國이 他國空軍의侵略을受한境遇에 他參加國은即時空軍援助를行할것

【伯林三十日發聯合】獨逸政府는 空軍로카르노協定案通告에關하야 三十日如左히 公式으로發表하엿다

獨逸政府는英國政府의 要請에基하야 空軍로카르노協定案에對한獨逸側의革案을通達하엿다

【倫敦三十日發聯合】英國政府는 三十日空軍相互援助條約에 對한 獨逸政府의 回答을 接收하엿다 右는 압서 맥도날드首相으로부터 空軍軍備競爭에對하야 獨逸自身의提案을 求한것으로 獨逸政府當局은 佛、白、伊三國에도 同一內容을 通達하얏다

英獨豫備交涉과 主要議題

【倫敦三十日發聯合】獨逸政府를 西歐空軍로카르노協定提案에依하야 英、佛、伊、獨、白各國關係의 空軍協議實現의 氣運이濃化하게되엇다 이때문에 近近五個國空軍協定을 審議할會議를開催하게될것으로 解釋되는데 右에압서 英國政府는 早速 獨逸政府와의사이에 豫備交涉을 開始할것으로 보이는 英獨豫備交涉의 主要議題로 傳하는 問題는 如左하다

空軍 로카르노協定 倫敦宣言의他의 條項及 다른協約、東歐協定 一般軍備制限 條約問題와 切離하야討議할것의當否

一、英佛 伊獨 四個國各自의 案을 檢討하야 相互對立의具體的協和

차코紛爭解決

파國戰鬪行爲中止

【부에노스아이레스二十九日發聯合】國際聯盟이 차코紛爭解決에 失敗한 以來 亞爾然丁、智利、브라질、秘露四個國政府가 共同斡旋에 努力한 結果 二十九日夜에 至하야 파라과이政府는 協定案을 受諾하고 即時戰鬪行爲를中止키로 決定하엿다

民世筆談(三五)

國際情勢要綱(十一) 天下의風雲은歐亞에!

安在鴻

上代以來의 사람들은 天體가 卵子가티 둥그러 星宿은 大地를 싸고돌엇는데 大地는 그茫茫한大宇宙의 中心이라고 미덧섯다 이見解는 깨어진지 오래지만 方今天下의大勢는 유러시아를 둘러싸고 그를 中心으로 한바탕의 歷史的大廻轉의 幕이라도 열듯이 각각 經綸과經綸인양 빙긋이 뚱기를 始作하려한다 東에는 四億數千萬의 中國民이잇고 西에는 敎億을헤이는 中歐의諸國民이잇서 각각風雲의 核心部를 일우려고하는데 夢想的이오 또無我的突進性을 가진 싸베르·슬라브人은 유러시아에 걸치어 무엇인지 歷史的未知의나라인것처럼 큰 수수꺽기를 가지고잇고 나치쓰獨逸과 帝國日本이 비로그東西에서風雲의 자루(柄)를 잡은듯이 一定한 念願과意圖를 펴고잇고 英帝國과 米合衆은 또그바그로 大小의海岸을 隔하야 각각世界一의 決裁力이라도 가저야하겟다는듯이 東西의最外線을돌르고잇다 이平面的 配置부터가 奇하다면奇하려니와 天下의風雲이 유러시아를 核心으로반드시한번의 大震雷를 보고 말려하는것도 무엇이지 開闢以來의 歷史的宿約을 품고잇슴가트다 파미르의高原은 天下의집웅이오 太平 大西는 左右의湖水이며 阿弗利加는 歐亞洲의餘脈이오 南北米는 베-링海峽을 노아 축치半島에通하엿는데 오스트랄레시아의 섬과섬들은 인도네시아 로버더불는 南天의 餘勢이라 유러시아大陸이 이미 天下의 根幹部로 되엇거늘 東西五千年 人類消長의 大歷史도 마치이고장에서 成長하엿스니 天下의 變亂은 獨에서 비롯하야 獨에마 마르는 流轉로서비아 항구로 그 유러시아에 일어나유러시아에서決算하려는 人文必然의因果를 지으려는것이다 이야말로 二十世紀의 新迷信인듯實은 歷史科學의 必然의 法則인것이다。

×

무릇 天下의 勢 兩個의 陣營이 對立하야 利害衝突이 尖銳하되 각각 그勝利를 自信하는때에 싸우고 兩個의 對立이 畢竟 妥協될수업는데 一個의 勢力이 장차 一個의 勢力과 均敵 혹은 凌駕하는 線에 接近할때 싸우고 數個의 集團된勢力이 數個의 集團的 勢力을 繼續하야 制壓하려할새 數個의 勢力이 制壓의 힘을 打倒할 工作이 成長되는때 싸우고 遠距離에잇는 敵이 勢力이 오히려 比等한데 逼近한 勢力이 그에게 加擔하려는 陰謀가 進行되는때 싸우는것이오 大衆數의 人民이 歸趨를 모를때에 그辛勤欽制하는 힘이 第三勢力에 依하야 破局되려할때 天下가 喪亂하는 契機로되는것이니 이數三事件은 歐洲의 大戰亂에서와 特히 英獨戰에서 본바이오 또方今 東大陸에서 보고잇는바이다。方今 歐洲에서는 匈牙利의 겜베쓰將軍과 墺地利의 쥬쥬니首相이 모다再軍備의 宣言을 하는바 혹은全然 獨逸의流義에 依한者잇고 혹은主觀에서 돌이어對獨防備를 意圖하는바도잇슬것이다 그天下將亂의徵象을 意味함만은 다룰것이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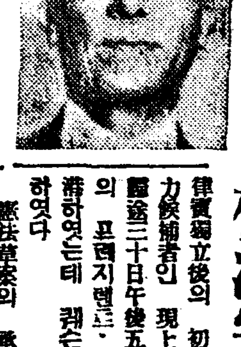
×

獨佛과 獨蘇가對立하고 蘇波가 隱然히對立하는데 小協商은 佛에追隨하나 匈牙利와 波蘭은 반듯이 佛側에 忠할者아니오 伊太利는 로마協定을因하야 佛과 結合하엿스되 아직도 依違하는者이오 英은 獨佛間에서 檢縱을 任使하려하되 久後에 英帝國을 打倒할者는 獨이아니면 蘇인것을 懷疑하는터이니 이는 로마帝國以來의 歐洲의盛運이 西班牙를지나고 佛蘭西를거처 위 런는 十九世紀의大戰이 英帝國 一世紀餘의霸業을 일우엇스는데 後進民族으로서의 物力과意圖가 獨蘇敗者로서 그의뜻을잇는事情에因한것이다 日蘇가 北方에서 睥睨하나 北鐵의讓渡는 어찌햇는 退一步의 緩和한幕이오 싸베르·슬라브人은 夢想的突進性이 잇는채로 또 매우實利主義인 大陸人의 矛盾되는反面을가젓스니 그들은 줄기어東端의正面에 나서지 안흘者이오 하물며 目下의關心은 東보담西에잇다 米合衆國人은 이미遼方에잇지마는 그의 海軍力은 一九三九年을 絶頂으로 그所謂 必勝兵力을建設하려고 極東大陸의 最大多數의 人民은 喪亂의可然性을 內包하고서도 그內政外交이 아즉露一할바업스니 이는모다 天下의 識者들의 關心明目의件이다

◇正誤 昨日本文四段廿四行 「만들려」고의「려」는 衍文、末段廿行依「蘇」는 衍。同廿二行末字「蘇」는 「露」의誤

十一月十五日엔 比島獨立이成立

라모스氏는獨立成立後招還優待 橫濱寄港의퀘손氏談



【電通橫濱電話】압서 比律賓憲法草案을 携行코 渡米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의 署名을 得한 比律賓獨立後의 初代大統領의 有力候補者인 現上院議長퀘손氏는 歸途三十日午後五時半 橫濱入港의 프레지덴트·쿨릿지號로 寄港하엿는데 퀘손氏는 如左히말하엿다

憲法草案의 承認을 得하엿스므로 歸任하는것인데 十一月十五日에는 比島의 獨立이成立될터이다 今夜 東京에서 [illegible] 川崎親侯의 招待會에 臨하야 一泊하고 三十一日朝 米大使館에 敬意를 表하고 午前十一時出帆의 同船으로 歸國할터이다 日本에 亡命中인 比島革命의 先輩라모스氏에 對해서는 比島獨立後 歸國케하야 優遇의 方法을 講究하려고생각하고잇다(寫眞은 퀘손氏)

人事·集會

▲李相昊氏(本社社會部長)六月二日午後二時白川溫泉天一閣에서 李貞娘孃과의結婚式을擧行

八面鋒

◇金獨裁權의否決로 佛內閣마츰내 崩壞。

◇人生은 땅에서나서 땅에서살고 땅에서죽거니、지금의於干萬事는 金에서始하야 金에서終하는모양。

◇그러타고 萬人이萬人 저마다拜金宗의 信者가 될것도아니지만은

◇一國의運命이 危殆하고 一國의宰相이卒倒까지한다함은 너무나 엄청난悲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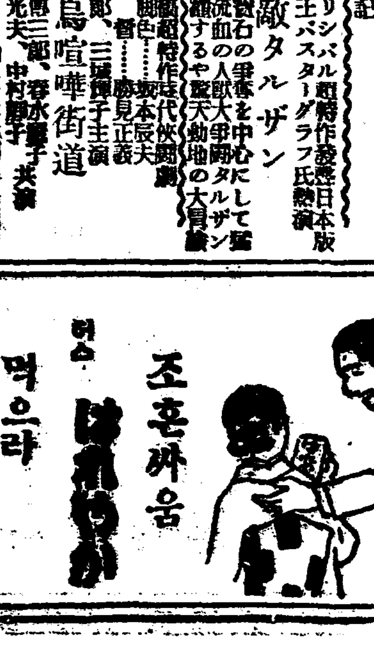
◇글字대로써서 金波라하면 詩興도돋우는 一讀도때粧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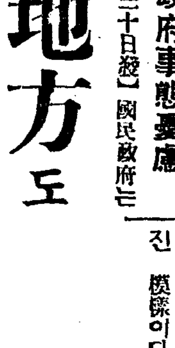
◇金波가變하야 世界를 뒤집는狂濤怒濤가되다하는 求是潮流의하나로볼수바게

六月一日より短期特別大公開 大都映畫超特作現代ナンセンス劇 原案脚色…戶畑鐵二 監督…吉村操 藤間林太郎、伴淳三郎主演 先生と劍道選手 甲賀計二、春水麗子 高村榮一、鄧賀まさ子 小笠原隆、大岡怪童 共演 愉快な先生とユーモアーな劍道選手とのいとも朗らかなスピード戀愛脫線記 米國プリンシパル超特作發聲日本版 水泳王バスター·クラブ氏熱演 無敵タルザン 神秘な寶石の爭奪を中心にして猛獸流血の人獸大爭闘タルザン一度跳躍するや驚天動地の大冒險 大都映畫超特作現代俠劇 原作脚色…坂本康夫 監督…勝見正義 桂章太郎、三城輝子主演 相良亀三郎、春水麗子 松村光夫、中村麗子 共演 旅鳥喧嘩街道 櫻井町 大正館

當ル三十一日封切(四日間) 初夏第一陣に贈る感激と興奮と爆笑の巨篇! 大衆席(大人壹圓)二十錢 特別席 小人十錢 新興キネマ超特作 サンデー每日所載 原作…桂川龍二 監督…上野眞嗣 脚色…西鐵平 京都府警察部防犯協會御後援 オール·サウンド版 民衆の太陽 森靜子、新入社田中春男主演 江川なほみ、大泉慶治、坂內永三郎、荒木忍 大助演 新興キネマ提供 嵐寬壽郎プロ超特作 サンデー每日所載 原作林不忘先生 監督 山中貞雄 口笛を吹く武士 嵐寬壽郎主演 春路謙作、山路文子、尾上紋弥助演 近日特別大公開 夏川大二郎 山田五十鈴 主演 お六櫛 永樂町 中央館 電本二二一

三十一日より大公開 主催 全朝鮮陸上競技協會 製作日數五ヶ年出場人員二萬人大パラマウントが空前の巨費とスタッフを以て全能力を傾倒せる巨大篇!!名作「モロッコ」出て五星霜沈滯の映畫界上に再び上る感激の嵐 上映順 一、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監督ラルフ·マーフィ 主演ガートルド·マイケル ▲銀鼠流線型 二、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 監督ヘンリイ·ハサウエイ 主演ゲーリイ·クーパー フランチヨット·トーン ▲ベンガルの槍騎兵 忠誠天を貫き詩情に香る榮光の死線に躍る武人の姿!! 故郷を遠く離れた炎熱ベンガルの大草原に深紅の長槍一丈五尺!!殷々たる非常時の砲聲の中に御國を守る猛夫の意氣と魂!! 友情と忠誠の二道に生きて敵陣に花と散る武人の響!! 烈々として頰を傳ふるは男の淚!! 次週封切の歐洲映畫!! ▲私と女王樣▲アラン 洋劇專門 [illegible]館





自轉車 原價奉仕 信用問屋 製造元より直接消費者へ 特典付商標原價 進呈 最高級新案自轉車 實用優美經濟的日英保險付 仕上吟味堅牢中古車 出物太リヤカー 地方御註文は 諸官廳納品 東京市日本橋區 電話日本橋

恩給 長期低廉立替 利信用은他에比較함이最有 特色은照會回答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幟 宣傳旗 優勝旗 校旗 團旗 國旗 カメヤ旗店 京城府黃金町五丁目 電話本局一五八五番 振替京城三四八四番

石油 重油 カドタ 發動機 ソガ型 ヒューガールポンプ 目錄進呈 合名會社 曾我商店 京城太平通二丁目八五番地 電話本局二一六八番·振替口座京城八九七番

五·三〇記念으로 共産軍續續集結
列車襲擊都市爆破計畫으로 圖寧警備機關緊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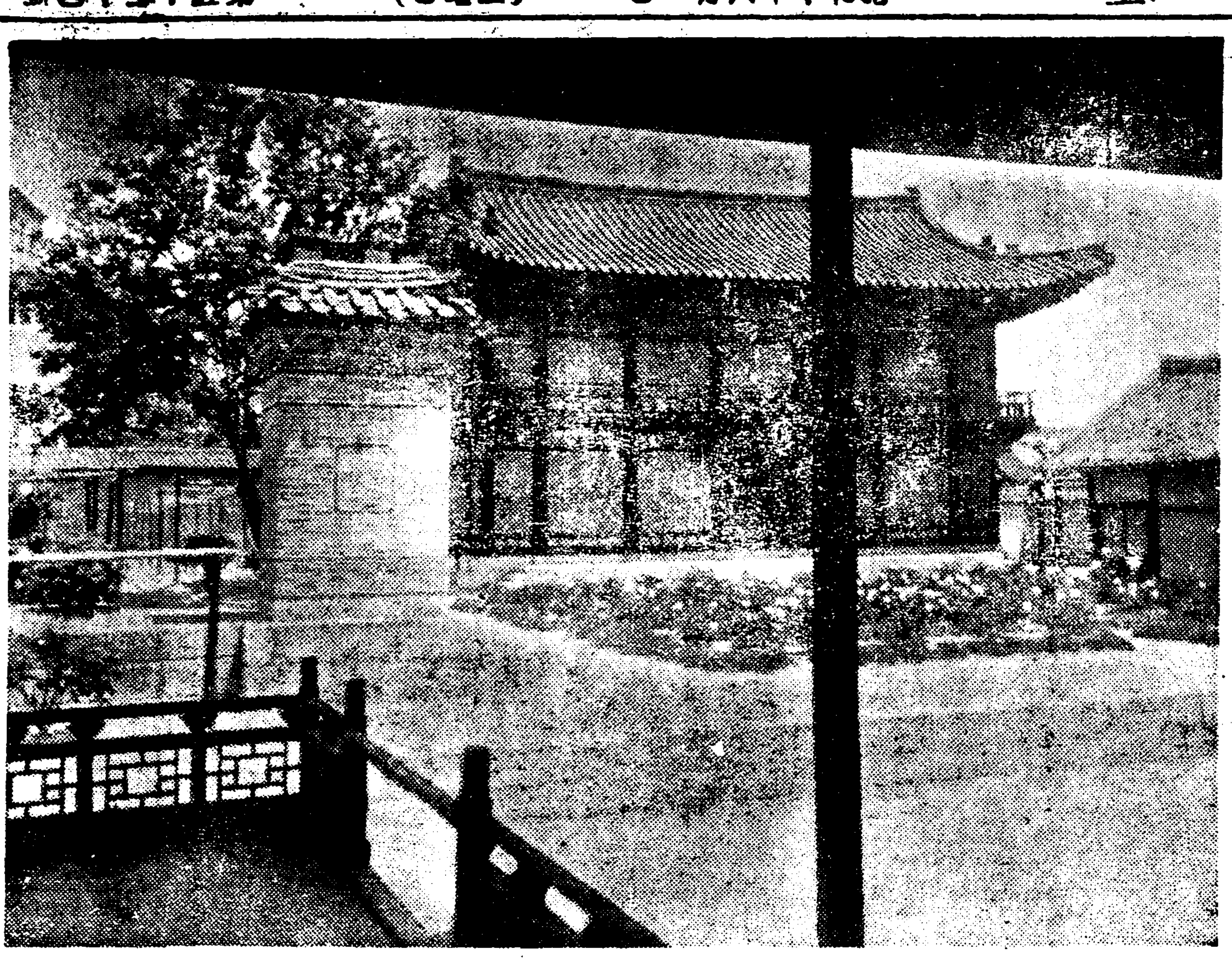
【圖們】 오·삼십사건(五·三〇)기념일을 압두고 간도일대의 공산군들이 렬차습격, 도시폭발등의 계획을 하고잇다는데 대하야 도문의각경비기관에서는 일층 경비에 힘쓰는중 이십팔일에는 도녕선신흥역(圖寧線新興驛)부근에서 렬차습격을 계획하는 백여명의 공산군이 집결되엿다는정보를 밧고 각경비긔관은 토벌준비를하고 대기중이요 동시에 이십팔일 오전여덟시십오분 도문발 녕북(寧北)행의 혼합렬차는 목하신흥역에 머물러잇다.

茂山坂田搜査隊 共産軍等과交戰
銃器書類多數鹵獲

【警務局着電】 이십구일오후한시 함북무산(茂山)서 판전(坂田)순사부장이 인솔한수사대는 무산군동면(東面)과 영북면(永北面)의면경계부근의 우적령(牛賊嶺)에서 십수명의무장공산군과 교전을한결과 총긔탄약회약 인민혁명군의긔 기타적색문서등다수를압수하엿다 그리고 탐거되엇든 김창현(金昌鉉)(三〇)와 이십구일오후 칠시에 동면빈래곡(賓來谷)벽지에서 석방되야 그곳친척의집에 도라왓다 한다

對岸에서 朝鮮側에發砲
方今附近을警戒中

【總督府警務局着電】 이십구일관전현(寬甸縣)남대문에 출현한로병은 경비대의 맹렬한사격을밧고 두대로갈라저서 약사십명의 일단은 그날 오전열한시반경에 라자구(拉子溝)의 벽지로 도망하고 남어지삼십여명은 남대문과 라자구사히의 버들밧과바위를리용하야 교묘하게 출몰하면서 라팔로신호해가며 이십발식 단속적으로 조선내로 향하야발포하므로 경비대도이에응하야맹사하엿스나엄른되각하지아니하야 이로인하야 항행선박은 전부조선즉국경선으로피난하고잇다 토병은 아직은 대치상태에잇스나 부근촌락에도습격의손을 빼칠념려가잇서서 경비대는 극력일대를경계중이라한다



[illegible] (금일, 덕수궁서)

開城女普校 廢止를內定

【開城】 개성부에서는녀자공립보통학교가 개성서와 드립개성의원이 접근하여 녀자교육상위치의부적당한점, 부내에 녀자공립보통학교가 한아인마친 사방에 흐터저잇는소녀들의 통학상불편한점 또는보통교육에 남녀각교로하는것은 경비와 체육발달에 잇서서 불합리하다는점으로보아 동교를폐교하는동시 부내에잇는 마월(滿月) 원정(元町) 궁정(宮町)가보통학교를 증축하고 남녀공학제를 실시하기로 내정하엿다는데 이에대하야 동교학부형측에서는 수차나 간담회를열고 신륙년의력사를가진 동교를폐교함이 매우 유감될뿐아니라 어린녀학생들을 돌연남자보통학교에 편입시가는것은 고려문제이라하는 조건으로동교페지반대운동을하엿스나 결국성과를내지못하야 부득이방침대로 명년도부터는 개성에도 보통학교 남녀공학제가 실행되리라한다

감자캣다고 少年을酷打

【大邱】 경산군하양면 금락동(慶山郡河陽面)우유상 하편이(河坪伊)의삼남 우암(又岩)(八)은 지난 이십칠일 백주에동동천변부근에 잇는 감자(甘藷)밧헤 수명의동모와함께 드러가 천연는마음으로 감자를파고잇는것을 동동에사는 밧주인장인주(張仁周)(五四)가 발견하고 우암을넘겨치고 발길로수차나차서 인사불성에이르게하엿는데 이소문을드른부모는 곳현장에빨리가서 어린아이를 구원하야 대구로다리고가서 방금구세병원에서 치료중이라는데 의사의말에의하면 라박상이외에 좌편목이 절골(折骨)되엇다하며 완치될때까지는상당한 일자가걸릴모양이라고한다

◇電車追突

삼십일 오전열한시이십분경에시내황금정(黃金町)이정목전차정류장에서서대문으로부터 황금정방면으로떠나려는 … 고 잇섯는데 남대문방면에서뒤따러가던 일백오십일호전차가압헤잇는전차가 떠나지도 안하서 밧자하야 드듸여 두전차가의위로충돌되고말엇다 다행히 승객은 오륙명의 경상자를 내인외에 모다 무사하엿스며전차도 창선정도까지는 가지안헛스나명창자모다 상당한파손을당하엿다 한다

在大阪同胞가 民衆時報發刊

대판(大阪)에건너가 잇는우리들외뻗으로 일본내지에거주하는조선인의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위하야 민중시보(民衆時報)를발행하기로 하얏다는바그동인은다음과갓다

▲金敬中▲金光洙▲金達恒▲金廷國▲金文準▲鄭泰重▲鄭在英▲李鎬泰▲朴尹錫▲朴遂柱▲洪淳日

白晝에賭博타가 豆腐行商一團被檢

삼십일오후 세시경부내원정(元町)삼정목일백삼십이번지두부장라씨(羅氏)의집에서두부장사최관룡외다섯명이화투를 하다가 순시중의 룡산서원에게 검거되야 룡산서에서 엄중한 취조를밧는중이다

京城保育學校에 大講堂單獨寄附
觀水洞洪正求氏의壯擧

시내청진동 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의 통창하는교우(校友)는 저은이 사회의주목을 끌어오든바 교육계를위하야 변래만흔공적을 끼처오든 홍정구(洪正求)씨의독지로 금번 오륙백명을 수용할만한대강당신축의 비용을동교에 단독으로 긔증하엿다는데 강당의 내부는 아래층에는 유치원보육실과 유아실을두고 이층은 대강당으로사용하게되리라한다

그리하야 동교에서는교사(校舍)와및긔숙사(寄宿舍)신축의계획을 다기여 하기방학기간에 대강당과함께전부착공(着工)하기로되어 금변내로 준공할 예정이라는데 이번 홍정구씨의 경성보육학교 대강당신축비를 단독으로긔증하엿음은 교육계에 희유한큰쾌보라하겟다

적은誠意 洪正求氏談

이소식을듯고 방문한 긔자에게 씨는다음과가티말한다 이일은 결코 내가 치하를 바들일이 아닙니다 조선사람이면누구나다 조선사람을위하야 그만한일을 다할것이 정한일입니다 나는다만이땅에 왓다가 가는동안에 내적은성의를 표한것일따름입니다

農具실은荷車 三歲兒를轢死

【仁川】 부천군(富川郡) 부내면 (富內面)도두리(道頭里)십칠번지 박성산(朴成山)(三〇)은 지난삼십일동리리덕궁의부락으로 인천까지 소를몰고와서 여러가지농구등을 사서 하차에가득실고 집으로도라가는도중에서친구를맛나 이야기를하고 소를노코잇는사이에도 산정(桃山町)삼팔번지한태동(韓泰東)의장녀당락(唐樂)(三)을치여 그즉시오후수당을가하야 도립병원까지운반하얏스나 맛츰내절명되고말엇다는바 가해자는과실치사로방금인천서에서 엄중조사중이라한다

六月一日부터 奉天博物開館

【奉天】 작년십이월부터 진열을 개시한 봉천상부지십위로(奉天商埠地十緯路)에잇는 만주국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동양문화의 대전당(大殿堂)으로써 청한시대(淸漢時代)의 진품보백점을 진렬하고 기타 수천점을 비치하엿다는데 동박물관은 구탕옥린저(舊湯玉麟邸)를 개조건설하엿스며 약반년동안에야 모든시설을 마치게되여 오는륙월일일에 개관식을 거행하리라는바 이로써 봉천의 명물이 또하나생겻다한다

杆城地方에 腸窒扶斯流行

【杆城】 강원도고성군간성면해상리(高城郡杆城面海上里)와교동리(校洞里)에 장질부사환자사명이 발생하엿슴으로 간성주재소에서는 방역에로력중이라는데 시긔가시긔인만큼 일반은위생에주의하기를바란다고한다

上海서押來한兩人 連絡關係發露?
取調에따라서全貌가들어날듯 警察部緊張追窮

삼십일아츰에 상해(上海)로부터경긔도경찰부로압송해온「레로」범인엄순봉(嚴舜奉)(三〇)과리규호(李圭虎)(二〇)두명은 방금고촌(高村)사찰계주임과 류(劉)부장의손으로 취조하게되엿다 취조를따라서 상해를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선인「레로」단체의 전모와국내와의연락도밝혀지리라하야 취조경관은 매우긴장하야방금엄중한 취조를진행중이다

取調밧다重態되야 三十分後遂絶命
道立病院의應急治療도無効
金泉署被檢의思想犯

【金泉支局電話】 경찰서에서 결사협의(結社嫌疑)로 취조를밧든 청년이 돌연히중태에빠저 병원으로 데려다가 응급치료한지불과삼십분에 드듸여 절명되괴상한사건이 발생하엿다=김천(金泉)경찰서에서는 자난이월이십사일부터 경북경찰부고등과의 지휘를바다 김천읍을 중심으로근처는물론이오 멀리는 대전(大田)에까지 서원을 출장식여 김시대(金時大)김종택(金宗宅)최인근(崔仁根)(三一)등의 청, 소년사십여명을 검거하야다가 경찰부고등과원과함께 주야로 엄중히 취조중인데 그내용은 알수업스나 전하는바에의하면 모종의비밀결사가 잇는가하야 검거한것인바 그중의한사람인 최인근이가 취조를밧든도중 삼십일오후네시경에 돌연히 중태에빠저서 생명이경각에 달햇슴으로취조를 뭄게하고 즉시 김천도립병원에보내서 응급치료를하엿스나 마츰내 신통한효험을 보지못하고 동네시반에 절명되엿다 (사진은 최인근)

死亡者는獨子로 消息들은其母氣絶
亂家가된그의本家

전긔취조밧다가 돌연히중태를 이르켜삼십분만에 사망한최인근은 자긔가정에서외아들로에지중지하는청년이라는바 그의모친탁씨(卓氏)는 그아들의죽은소식을 듯고 긔절하야 그집은여시큰소동을이르키엿다

鐵道電信電話의 작난交信이頗多
"고자질"機備置取締

분망한 철도의 전신전화를 사용(私用)에나 기타 쓸데업는통신에 사용하는 경향이잇서 이것을엄중히 취체하야 사무통신의원활을 옹긔하고저철도국에서는요전에 본국운수과 렬차게에 전신전화 감독긔를 각각하나식 비치하고 전조선철도의 통신상황을 조사키로하얏든바 전신은 지난이십이일이래 매일두어시간식 시험으로 실시하얏든니 벌서여기에 걸린것이 삼십일까지에 삼십여건에 달하는바 그중에는 싸홈하는 통신의 교환과 『에로』만담의 교신등이잇고 그외에도 규정위반등이잇서 일일히 그긔게에 나타나는데 황해황주(黃海黃州)와 신막(新幕)간에 다섯건, 룡산, 대전(龍山, 大田)을비롯하야 기타각역에 상당히 작난하는 통신이잇섯다 현재 종업원은 이런 취체긔계가잇는것을모르고잇는 모양이나 곳전화에도 이것을 운용하야 엄연한 증거를 잡아가지고 질책을나리리라한다

賠償金着服한道議 警察에서自殺企圖
壁釘에觸頭後破碗으로割腹
問題의露油뒷處置

【三十一日記事解禁】【元山電話】 함경남도덕원군(德源郡)선출의민선도회의원으로 본적을 덕원군부내면당치리(德源郡府內面堂峙里)에 두고 원산부해안통(元山府海岸通)륙정목에서 상업을하는강현팔(姜顯八)(四七)은지난삼십삼일에 돌연히임의출두(任意出頭)의형식으로원산경찰서에 인치되야 아부(阿部)사법주임의 취조를밧고잇든바이튼날이십사일에마츰내류치되게되야원산서에서는특히강씨의사회적지위와 명예를생각하야 그날밤은원산경찰서숙직실에 수용하얏든바그는오후아홉시경에감시하는순사가업는 틈을타서기둥에배힌다섯치가량되는못(釘)에스스로머리를부듸처 머리중앙에깁히륙푼남어지의중상을입고 다시그방에잇든차종(茶碗)을 깨트려그조각으로 고환(睾丸)을발래내여가지고고민하는것을 경관이발견하고크게소동하야즉시 원산의원에보내서응급수당을한결과 생명만은건젓는데 동씨가자살을기도하기까지에이른사건의 내용은강씨가이삼년전에로서아석유(石油)의수입판매를계획하고원산부해안통삼정목딸번지곡물상김리석(金利錫)(五?)씨와합동출자하야 원산중정(仲町)일정목에다가 고려상회(高麗商會)라는 상점을내이고 조선일수판매를하고자하얏든바 보충금이 만히들어서 일이년하다가 자금난에빠저서 김리석씨가 상당히출자를하엿스나 일이뜻대로 아니되고 로서아측과의거래상분쟁이생기여 로서아상무관(商務官)과삼사차절충을한결과 작년가을동경(東京)에서 사사로화해가되야 로서아측으로부터 배상금으로삼만원을바다가지고 그반부이일만오천원을 강씨가비밀히착복하고 남은일만오천원만가지고 김씨와출자를에 딸아 분배하얏는데 그후 강씨의 동정에대하야 의혹이생기고 이소문이당국의귀에들어가 로서아 상무관에 직접조회하야 확증을어더서 동씨를소환취조한것인데 이사건에는경성에잇는 모유력자도관계가 잇다는말이잇다

自動車部火災
損害는五千餘圓

【平壤】 이십구일 오후열한시삼십오분경 평양부내신창리(新倉里)대동자동차(大同自動車)「써-비스」공장에서 발화하여 동공장과 린접한 차고(車庫)일부 객계등속을 전반소하고 삼십일오전한시경에진화햇다 손해는 오천원어며 발화원인은 루전설도잇고 공장에서 직공이 도라갈때에 잔화(殘火)를 부주의한때문이라고도하나 아직 조사중이며 인축의피해는 업섯스나 인가가조밀한 장소이엇든만큼 일시대소동을 연출하엿다한다

中央高事件 來六日開廷
京城法院에서

지난번에 폭력행위취체규측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서 두차례로긔소되여 그법원공판으로 넘어간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普)생도 전민수(田民秀)황영구(黃榮九)등열한명에 관한사건은 오는륙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산하(山下)판사, 촌전(村田)검사의 담임으로제일회공판을 열기로결정되엿다

新設里火災 全半燒四戶
損害六百餘圓

삼십일 오후 열두시반경에 시외신설리(新設里)삼십거번지리우현(李宇鉉)의집에서발화하야동가를 전소하고 그이웃집리춘홍(李春弘) 리원묵(李元默)리민현(李民鉉)의집을전반소식혀는데 소방대의 노력으로 동여덟시 이십분경에 겨우진화되엿는바 손해액은 약륙백원가량이며 발화원인은소관동대문서에서 목하조사중이라한다

서투른地理를 窃盜에곳利用

삼십일 아츰에종로서 사법계형사는 종로네거리를 지나가는수상한 청년을발견하고 잡간동행하고 취조하얏든니 그는당진군 송악면주교리(唐津郡松岳面住校里)에 본적을두고 일정한주소가업는 전과 이범 김영철(金泳喆)(三一)로서 지난십이월까지 시내본정(本町)어느 과자점외교원으로 잇섯는데 그동안에 어든 지리의지식을 곳리용하야 절도를 시작하야 주로절믄부부뿐인방이나 어린녀자들방에만골라가면서 침입하야 귀금속을전문으로 훔처서는 신정(新町)방면에가서 유흥에 썻는데그피해가수백원에 달한다고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 朝鮮及日本에 떠저잇는데 東海中部에는 强한低氣壓이잇서 東進하고잇다 蒙古方面도 氣壓이나저지고잇다 南岸은 薄曇이고 其他는大槪快晴하야 바람은弱하나 明日도繼續하야 日氣는조흐나 느저서는薄曇이리라

昨日氣溫 最高 二七、四 最低 一二、五
今日正午 一四、八

運動競技
京城水泳場 明日부터開場

京城運動場內에잇는 府營水泳場은씨-슨을마지하야 明一日午前十時부터 始泳式을行하고同午後一時부터一般에게 有料開放할터이라한다

兼二浦庭球團來京

兼二浦庭球團一行은 明一日午後二時五十分京城驛列車로 內京하야 二日(日曜)午前과午後에 龍山鐵道庭球코-트에서 鐵道, 商銀兩團과對戰할터이라한다

『히틀러』總統은 拳鬪를조와한다

獨逸의 『히틀러』總統은 拳鬪팬이다 그의著書『나의鬪爭』이라는冊子가운데 拳鬪는 自己防衛의가장適合한手段인 同時에 絶大한體育的效果가잇다고 力說하엿다 그리고 氏一流의獨斷論法에依하야 拳鬪야말로 스포-츠의最上位를 占할것이라는 結論을이끌어내어 『拳鬪는나치스黨員의必須스포-츠科目으로 奬勵하고잇다』 氏가爆彈宣言을 하려고곳바바리야』의 山莊에서 瞑想에빠저잇슬때에도 氏에게가장快한時間은 獨逸이나은世界一流拳鬪家(介메링)天寶가 來訪하야拳鬪 …

第二回 全朝鮮아마튜어拳鬪選手權大會
日兼比島對抗代表選拔予選大會

日時 六月七、八兩日(午後四時半開始)
申請 六月四日까지 黃金町一丁目一四三番地 同聯盟事務所로 (電本一九四四)
選手權種目 플라이、밴탐、페더ー、라이트、웰터、미들、라이트헤비、헤비八種目
場所 東一銀行庭球場 (慶雲洞天道敎堂東側)
主催 朝鮮體育會·全朝鮮아마튜어拳鬪聯盟
後援 朝鮮日報社

研究社 英語通信講座
會費每月壹圓!
一九三五年의社會는 英語의實力을 諸君에게要求하고잇다
萬一諸君이사라잇는英語를잘알어서이것을自在로驅使하야現代第一線에설나는希望한覺悟가잇스면速히本講座를읽으라 前歡夕二時間式 五個月의短時日에훌륭한中學卒業의實力을約東할수잇고더구나學費는日本서第一低廉
內容見本進呈 ■ 葉書로申込次第無代進呈
東京麴町富士見町五
研究社通信學部 (振替東京三〇八五番)

六月二日(日曜)午前九時부터本校陸上運動會를開催하오니校友諸氏는掃萬枉臨하심을務望
徽文高等普通學校 白

콜럼비아 大衆盤 리갈레코드
名曲名盤! 이처럼廉價!!
一枚八十錢
REGAL

煙草用小函改裝圖案懸賞募集
一、圖案ノ用途 兩切紙卷煙草「ピジヨン」用小函ノ圖案ヲ改正セントス小函(外小函及內小函)ノ圖案ヲ要スル部分ノ寸法左ノ如シ
外小函 竪 七三粍 横 一二四粍
內小函 竪 一六、五粍 横 四三粍
二、煙草ノ名稱、着色、圖案ニ挿入スベキ文字及圖形
名稱 「ピジヨン」「PIGEON」
着色 四度刷以下(可成金銀色ヲ用ヒザルコト)但シ內小函ハ一度刷ニ限ル
圖案ニ挿入スベキ文字及圖形 煙草ノ名稱タル「ピジヨン」「PIGEON」「十本入」「定價拾錢」「朝鮮總督府專賣局」ノ文字ト鳩ノ圖形(其ノ他ノ文字ハ使用セザルコト)但シ內小函ハ鳩ノ圖形ニ限ル
三、圖案ノ原稿 用紙ハ「ケント」紙又ハ畫用紙ヲ用ヒ圖案ノ大サハ小函(外小函及內小函)ノ寸法ト同一ナラシムルコト、尚原稿ノ裏面ニ懸賞應募者ノ住所氏名ヲ明記シ封筒ノ表面ニ『懸賞圖案應募』ト朱書スルコト、一人ニテ幾枚應募スルモ差支ナシ
四、締切期限 昭和十年七月十日迄ニ專賣局ニ到達セルモノニ限ル
五、賞金 審査ノ上入選圖案ヲ左ノ等級ニ分チ左ノ賞金ヲ贈呈ス
一等 一人 貳百圓
二等 一人 百圓
三等 三人 各五拾圓
佳作 若干 各拾圓
但シ二、三等人員ハ審査ノ結果ニ依リ變更スルコトアルベシ
六、審査結果ノ發表 審査ノ結果ハ昭和十年八月中旬ノ朝鮮總督府官報及京城日報紙上ニ發表ス
七、其ノ他 入選シタル圖案ト雖モ使用セザルコトアルベシ 入選シタル圖案ノ版權ハ政府ノ所有ニ歸ス、尚應募圖案ハ之ヲ返還セズ 本懸賞募集ニ關シ不明ノ點ハ直接當局事業課ニ就キ承合セラレタシ
昭和十年五月
京城府永樂町 朝鮮總督府專賣局

婦人時評

가정부인과 직업부인

(上) 一步生

근래에와서 조선에도 직업부인이 만히 생기게 되엿다 여자라면 가정주부에 무치여만 잇는줄알든 조선서도 신교육의 발달과 아울러 어지엽부인이 점점 그수를 늘리게 되엿다는것은 사회발전단계에잇서서 크게 기뻐할현상이 아닐수 업는것이다 그러나 직업부인이란 대개무엇이며 또 직업부인과 가정부인은 무엇이 다를것인가? 그리고 직업부인과 가정부인은 그러케 확연히 갈려야할것인가? 이문제는 직업여성이 만흔 오늘날한번 검토해볼 자미스러운문제라고 생각한다

×

가정부인이라면 문자그대로가정에 드러안저 가정일만을위주하는 녀성을말하는것이오 직업부인은 직장에나아가 일하는여성을 말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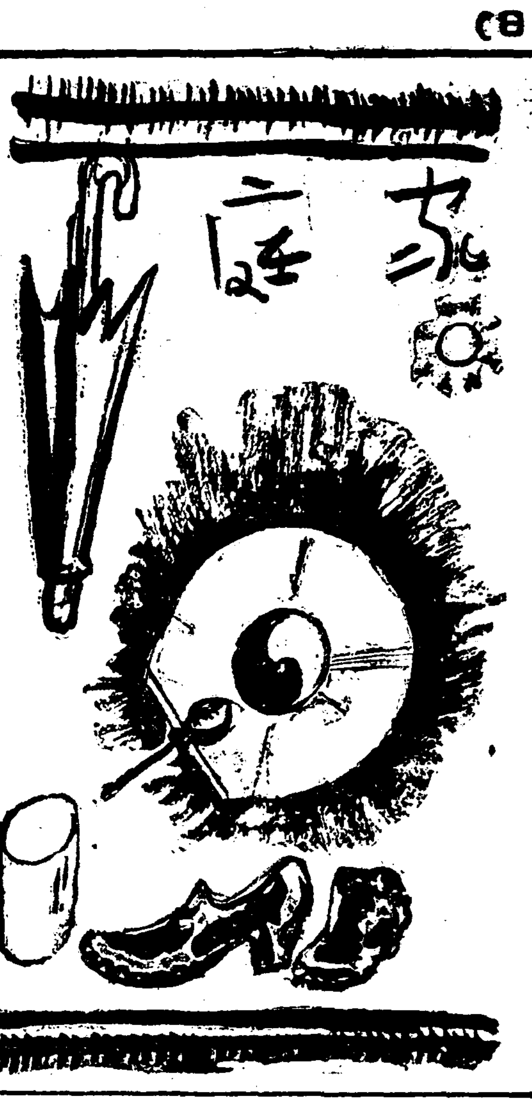
자격가일에서 그보수를 어더 독립적경제생활을할수잇는 직업부인이야 말로 녯날 봉건시대의부인들에 비교 한다면 그것은한거름 아니 몃 백거름 진보된、현상으로써 오늘날의 신녀성은 대개가 직업전선에 나아가 혹은 녀교원이되고 사무원이 되고 타이피스트가되야로동을하는동시에 그것을한자랑으로알게쯤 되엿다

도일방 생활의 수단으로써만 어 안이오 혹은「독립적경제생활」을 의미하야 또는 사회를 좀 알자는 의미로써 직업녀성도 되는일이잇는데 어떠튼직업녀성이 된다는것은 봉건도덕에서 녀성의발성을 무겁게봉처매엿든쇠사실에서 해방된것이라하지안흘수 업는것이다。

그러나 직업녀성이 되엿다고 그것을 자랑으로만 할수잇슬가? 우리는 여긔에 검토할 필요를 늣기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직업녀성에서 세가지로 분류할수가 잇다。하나는 결혼을하지안흔 미혼처녀 하나는 결혼한 녀성 또하나는 결혼을하고 어린애를나흔 녀성! 이세가지로 구분해봇다면 직업녀성에도 그종류를따라 그직업을 따라 희비의차이와 고통의 차이가 떠그나 심할것이다。

이제 미혼처녀의 직업녀성을 보면대개 자긔가 배운봉부를좀더 실제적으로 활용해보자는것 또 결혼전 준비로써 경제적여유를 엇는일방 사회적으로 자긔가조그만지위도 갓는다는 공명심과 또 사회를좀더 알려는 생각에서 나온것이오 결혼한녀성들의 직업은 좀더경제적 생활을유택하게해보자는것일것이다 전자는 그리상하는바가 어느정도까지 실현할수잇슬것이지만 파면 후자 즉결혼생활을 하는 녀성이 직업을 갓고 경제적윤택이되고 가정이평화 할것인가? 이는 좀생각해볼 문제인것이다



코피는방심못할것 중병의예고도된다

‖함부로콧구녁후비지말일‖

코는병이드러오는문

밤에 잡이든뒤어라든지 아침에 세수를하다가 코에서피가나는수가잇는데 더구나 요사이는 긔온(氣溫)의탓으로 상혈되기쉽고 또는긔압(氣壓)의관계로서 비혈이나오기쉬운것입니다。코에서피가나면 긔분이조치못한후에 귀중한 혈액까지 일허버리는것도조치못할뿐만아니라 이것은왕왕이

중병에걸일전조로서 낫타나는수도잇습니다。그럼으로 특히주의해야할것은 물론이지마는 비혈에의해서는 병을미리진단해서 위험한것을예방하는수도잇습니다。

그런데 코에피가어듸서 제일잘나는냐하면코ㅅ구녕속에 맛치칸을 지르드시서잇는 거긔서입니다 이것은점막(粘膜)도 엷고 손꾸락끗으로잘만지기쉬운때문에 피가잘나는것입니다 그럼으로코에피가날때는 코를세게쥐고한참잇스면 대개는긋치는것이나 그래도안긋치면 이것은 다른데서나는것입니다

그리고 량으로는 맛치 물ㅅ**방울떠러지드시** 똑똑떠러지는것도잇고 그냥쏘다지는것도잇고 심하면 목구녕에서까시나오는것과 그럿치안으면 코를풀때만나는수도잇스나 량의 맛코적은것은문제가아니고 오히려 량의적은것이 중병의예고가 될때가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비혈을 년령별로살펴보면 특히 어린애들이주의하지아니하면 안됩니다。三四세로부터 五六세까지에 전신에는 아모런이상도업스면서 한쪽코가막히고 악한냄새가나는 피고름이나올때는 **코속에공이나** 조히부시레기갓흔것이드러가잇는것입니다。대체로 어린애란무엇이든지 입으로 코으로집어너키를 조화하는때문에 코가잘막히고 거기에미균이생기는것입니다 그중에도 가장무서운것은코에서생기는「지프테리아」입니다。이병은보통처음에 목에서생겨서 코으로올마오는것이나 어든때는처음부터코에서생기는수도 잇습니다 그러나 이병은 열도 업고 별로히괴로워하지도안는때문에 전염할위험성이더욱만흔것입니다。증상으로는 양쪽코가막히고빗치흐린피가조금식나면서코ㅅ구녕에 **붉은닥지가부터** 잇는것입니다、이것은 조금만주의하면 곳알수잇는것입니다 그리고 선천성매독가튼것도 빗치흐린피가 나옵니다。그리고 난지얼마안되는어린애에게코가막히고양쪽에서 피가나면서 코구녕이발갓케터지는것은 대개 이것입니다。「아데노이드」가잇는애도비혈이잘나는것인데「아데노이드」는 신체에만낫븐것이아니라 지혜가발달하는데도 아주장애가되는것입니다。

로인은 어떤애이상으로주의해야합니다。四十세이상의사람으로서 항상 **한쪽코가막히고** 코를풀때 피가석거서 나오는것은 암종(癌腫)의염녀가잇는것입니다

암종은 초긔에베여버리면 낫는수도잇지만은 모르고느저저서 병이주위의 뼈ㅅ속으로떠저버리면 뺨이부어오르고 눈알까지튀여나옵니다

이러케되면 엇더케하는수도업습니다、그리고 이변배에 비혈이나는것은 뇌일혈이나 중풍의전조가될때도잇습니다、별로 코이막히지는안어도 비혈이자조나거든 첫재 뇌일혈의예방을하십시요 그리고 부인들의 남자와달나서 특수한월경으로 **별로염녀되는것**은아닙니다。꼿흐로 비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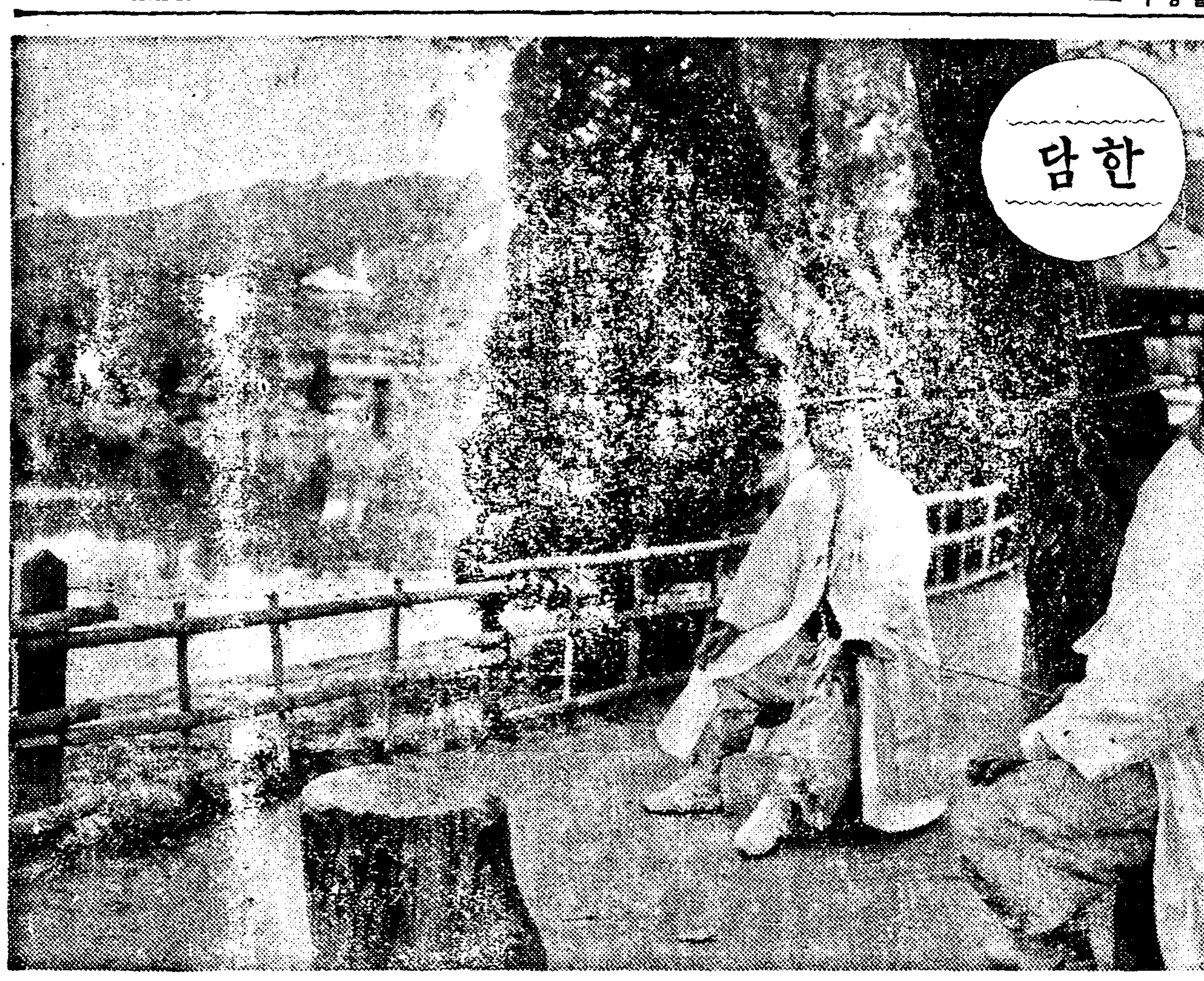
간단하게 막는법으로는 어진간한것은 코를한줌쥐고잇스면 대개긋치는데 그래도 낫지안커든 머리를숙히들고 코에다 고무로만든놀주머니를대이고 안정하게 잇스면낫습니다。그리고 비혈이 버릇이되여잇는사람은 항상 뒤를활하도록하고 야채가튼것을만이먹으며 자극물은 먹지안는것이조흘습니다。

모기를잡기전 쟁개비를업새자

‖석유만뿌리면즉사‖

여름철에 빈대가나오고모기가 맹렬도리칩니다 이모긔란놈은 더릅집은 재세상가터 날뛰는데다 이때에잇서서 여러분은 아모긔를 어떠케 나지안토록예방선을 처서 밀이 이 모긔퇴치방법을 리용해주십시요

모기를 안생기게 하려면 몬저 집둘레의 더러운물고인곳이나하수구가튼것을 깨끗히하십시오 그러면 모기가생기지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하수구가튼 곳이 불결하여 모긔가 생겻거나 또는 공지(空地)의 빈통가튼데 모기가 쾌일때는 석유(石油)를 뿌리거나 크롤수(水)를 적당히뿌리면 즉살이됩니다 그러고 잉어나 금붕어를 길르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물속에잇는 쟁개비(모기색기)를 잡어먹읍니다 그럭크로모기가 생기지 안케됩니다



비단으로짠양말 덜해지게하는법

무슨양말이든지 다그러치만 더욱이 비단양말은 발뒤굼치나 발고락곳쪽에 쉬해져고 구녁이나기쉽습니다。이것을 막는데는 신는쪽쪽 물에흐늘기만해서 빱니다(양말은 때가끼다거나 땀이무드면 써어서터쉬해지니까요) 그래서 마른다음에는 발끗발뒤굼치해지기쉬운자리에 밀초(蜜蠟)를 양초를 되-게문대여신으면 오래갑니다。

처음에는 초물로면자리가 하-야케되고 냄새가나지만 신고잇는동안에 금방업서집니다。

◇

또한가지-비단양말은갓사가지고 그대로신지말고 먼저 엷게탄소곰물에 하로밤쯤담것다가 이튼날아츰 맨물에살짝헹구어 볏안드는데 말려서 신으면 퍽오래신을수잇습니다。

용모의결점은 기술로때웁시요

직업부인으로나서랴면

옛날직업부인 이라하면 대개 인물이잘못나서 처색시는 얼골이 추물이돼서 시집도 못가므로 하는수업시 직업부인이돼야 한다고 하엿습니다 그런데 시집가는것이 여성의 유일의 목적이든 시대 즉다시 말하자면 한번 직업부인이 되면 오히려 시집가기가어렵든 시대 그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달러저서대부분의여성은 직업을구하게되엇습니다 그리하여 구직여성은만치만 모두 직업에 취업할수업시되 오늘에 잇서서는 그것을 선택해야하는데 이선택의 표준은 대개가 재능이나 건강의 순서가안이오 미모라야 우선권이 잇게쯤되엇습니다

물론이들 삼요소를 모두구비햇스면 조흐련만 그리치못한 사람은 직업에도 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얼골에자신이업는분은 되도록 명소에 무엇이나전문적인 긔술을 배워두십시오 주산을 잘노커나 재봉을잘하거나 교화수나 타이피스트나 무엇이나 특별한 긔능을 가지십시오 그리면 취직경쟁시대에도 얼골이못생겨서도 [illegible]수가잇습니다 만일에 직업을 구해도 구할길이 업고 시집을가려도 못생긴탓으로 결혼을 할수업다하면 이것은 녀성에잇서서 아니인생에 잇서서 큰비극이 아니겟습니까

안해를빈정대지말라

리혼자유도시 로산젤스 (夜話)

이런이야기야 『아메리칸』가아니면 들을수도업는것이지마는 또하나 소개하겟습니다。『네봐-다』주의 『레노』라는곳은 본래부터 소박상이끼인지방인지 가장간단하게 리혼이잘되는곳으로 유명한으로 사이날분 부부들은 각지로부터 사이좃케 몰녀드는곳이엿는데 요사이는 영화의왕국 『헐리웃드』갓가이잇는 『로스안젤스』가 『레노』는뒤로물니고 결혼해소판의 집산처로유명하게되엿는데 이의통계를보면 『레노』재판소에제출된 리혼소송이 백십이건인데비해서 『로스안젤스』는 구백삼건이라는 놀납만한 전문적수자를 낫다내이고잇다고합니다。그중에서 가장 진긔한 멧가지를말해드리겟습니다

一、그유명한 『브론드』녀우 『잔·할로-』는 그세재남편인 『헐·롯손』이 잘빈정댄다는리유로서 씨는듯이 결혼해소가되엿다니 천하에부군된사람은모름직이근신할일。

一、비극작가 『할스·맘마스』씨가작품을 구상하느라고 긴장된생애에빠저잇는동안에그안해『킴·롯돈』부인은 주의주를청하고한때문에리혼성립

一、『쿨리앙·원쭈·폭스』라고하는열아홉살먹은 어린남편은 열여덟살먹은 그안해 『레리사』부인이 남편보담도 개를더사랑한다고리혼。

一、녀우 『도로시-·막고-안양』은 그부군 『헤이즈·못순』씨가오후네시가넘도록짐을비원두엇다고리혼。

一、영화의『카메라맨』인『돈·제임스』군은 남양에 로인의녀자의풍속을 가르처고갓다고해서리혼제출을하엿는데 이것도 성립되엿다니 이러케되고보면 엇더한행동만이 리혼조건이되지안는것일는지?

맛잇고 담스런 中國料理 멧가지

涼拌豆莢 (량페두자)

재료 우무、약간을물에 불켜서 기름하게썰어놋코 콩껍질(豆莢)。오십매가량을 끌는물에살작뒤처서낸뒤에 채로썰어놋코 도야지고기。삼십조각가량을가늘게써러놋코 참기름。간장。초。백사탕。각소량、

조리법 큰접시에 우무썬것과 콩껍지썬것을잘담고 그우에 고기썬것을 언고 참기름과 초사장을해서그우에부어서 먹는것입니다

까리하찌어

화류계녀성과 결혼해도조흘까?

문 저는 금년십구세의 남자입니다 그리하온데 지금으로부터 약사개월전에 우연히 화류계 녀자와 정이 깁히들게 되엿습니다 화류계여자이니마치 저는 그를 의심한것도사실이나 저는 그동안그의 열편단심이 나로써는 그여자를도저히 의심할 여지가업게쯤되엿습니다 그러하오나 저의집에서는 큰일이라고 뽕이야 붕이야 결혼을 식히려고 야단입니다 제 친형편은 저와 어머님과 단두리사옵는데 생활은 넉넉하나 저의학식정도는 중학교이년밧게안됩니다 지금 이때에 어느길을 취해야 조흘가요? 그여자는 화류계서 나온지도 얼마되지안사옵고 나히도열여듧입니다 (昌州一 靑年生)

답 그런생각버리고 좀더수양하시요

십구세란 어린나히에벌서화류계출입을 한다는것은당신으로서너무조숙된행동이 안일가요? 나는 완고한 도덕적 의미에서만이 안이라 사실 어린아히에 화류계출입은 그자체가 매우염려됩니다 지금 당신이 십구세 그여자가 십팔세라고 하지만 그방면의 십팔세는 벌서 세상푸파를 다겨근것입니다 물론 그런곳에잇든 여자도 순정적인 여성이 엽든것은안이나 당신을 위해서 지금그런생활을 청산하고 새길을컬으십시오 그래고 어머님이지극히 서룰르는 그결혼도마십시오 당신은 좀더 수양을 하고 나히도 상당히 먹은뒤에 결혼하시요(一記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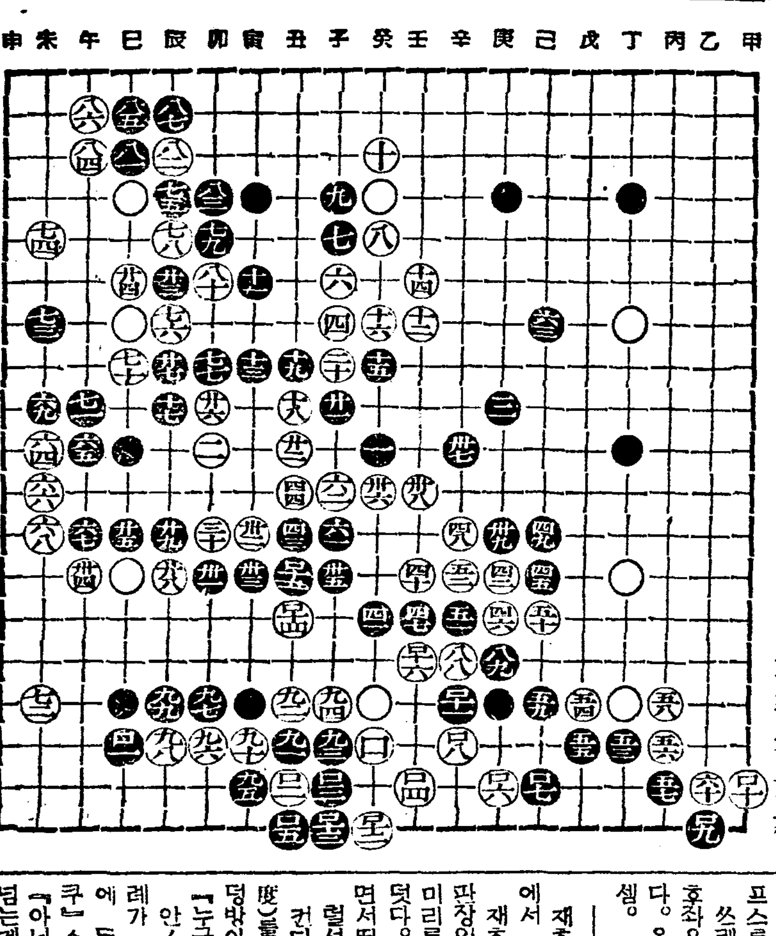
曆 六月一日(土) 舊五月建壬午(大)一日 戊申·土氐平 ●祭祀에宜함 ▲芒種 七日(舊五月初七日) ▲夏至 二十二日(舊五月廿二日)

세상사를잇고 요트에만

『폭란동의』니 『군비확장』이니하여서 구라파상공에 얼켜잇는 불안한공긔가 다무엇이냐고 독일에도 빗나는첫여름의 그윽한향긔와함께 『욧트、씨-즌』이차저왓습니다 은사실가튼햇살이깨여지는 물결사이로 서늘한바람을실흔『욧트』가 여긔 저긔서보이는것은 명낭한긔분도그지업습니다。이러케도 장쾌하게『욧트』노름을하는데는 그실흔소제도괴롭지안타는그네들 지금부러는향긔로운『오존』을[illegible] 유쾌한하로를 지나자는것입니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7)

互先 白 柳鎬河 / 黑 丁奎春



●一〇一 巳의十七 ○一〇二 丑의十八 ●一〇三 子의十八 ○一〇四 癸의十八
●一〇五 丑의十九 ○一〇六 庚의十八 ●一〇七 己의十八 ○一〇八 辛의十七
●一〇九 乙의十九 ○一一〇 甲의十八 ●一一一 辛의十六 ○一一二 癸의十九
●一一三 子의十九 ○一一四 丑의一四 ●一一五 丑의十三 ○一一六 壬의十五
★完 點 ○一〇二 丑의十八

◇蔡極文氏評 白이 丑의十八로 黑 後肩을 襲하고 癸의十八로 [illegible] 法方에 精熟함이요 黑이 乙의十九로 除함도 此亦 法點이다 白의丑의十四로 襲하고 壬의十五로 引出하니 雙方에 危機가 七分은 黑便에잇는지라 結果如何는 豫不可測이니 逐次態勢를 會心一覽할지어다

수술후의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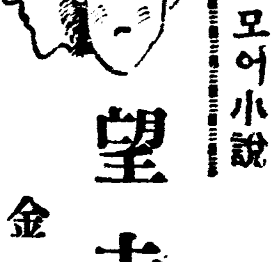
문 당년 오십세 녀자이온데 금년삼월중 병이생겨서 성대병원 송천외과에서 수술을햇습니다 그런데 수술상처가 다합창되고는 매갓쪽으로 큰사마귀만한것이 밝앗코 각금피가 나오며 압흔증세는업는데 아물지안습니다 그동안「옥시풀」로소독만하야왓습니다다가정에서 전쾌하도록 하교하야주십시요。(淸進洞一讀者)

답 무슨병으로 어데를 수술한것인지 분명치못하야 말삼키어렵습니다 한번잘하잘되엇든것이 다시 붓고러운편이 오다하면 수술할재의실(縫合絲)이나왓지도 알수업습니다。수술을바든 병원에가서 치료를하십시오。(大學病院小川外科 金晟鎭)

안장코를곳치라면

문 생은 금년이십륙세의 남자이온대 어렷슬적에 구갈병으로 코의등뼈를상하엿습니다。그래서 외편으로 파렴되든은업스나 코가대단야러서 코의끗만조곰틀름로혼적도업고 코의중간은 더케곳칠수가업겟는지요。자서히 가르켜주십시요。(振城 한탐生)

답 코가 야튼것은륭비술(隆鼻術)조비술(造鼻術)과가튼 정형수술로 곳칠수잇습니다。큰병원 외과에진찰을밧고 수술여부를 상의하야보십시오。(大學病院小川外科 金晟鎭)



유-모어小說

望夫石 【廿五】

金熊超 作·畵

脫線特急 (九)

아니나 다를까、머니때가든면 지처만두엇슬대문이 꽉 다쳐잇다。설령 빗장을 질럿드래도바게서 빗장에 달린삼노끈만 잡아다리면 열리는수가 잇는데그나마 싹거더드렷다。

一이야말로 금성철벽이로구나。혼드데야 안여려줄테고!

재호는 한거름 물러서서 대세(?)를 관망하엿다。

대문으로는 손고리하나 디리밀 틈이업다。두레는세푼이나놉히가 여섯자남짓한 검은판자도 오늘밤 보기에는 해발몃천척이상이다。러진 데라고는 위와아래-위로 팡막한 하눌이 잇고 (유난스럽게 별이 빤짝어린다) 아래로는 수채 구녁이 잇슬뿐이구녁은 하수와쥐의통로로 벌서부터 지정되여잇는것이다。

一넘어가?

재호는 육체와령혼이 따로떠려잇는지 자기가 자기자신에게 무럿다。

一별수업서。나폴레오는 엘프스를넘엇다지!

쓰레기통우에 한발을딋고 호좌우를살핀다음에 선뜻올라섯다。올라서보니 반중턱은 오른셈。

一이런때 순사를맛나!

재호의 령명(令命)은 이절벽에서 굴러떠러지고마는판이다。

재호는 진땀을흘리면서 얼른 판장위로 뛰어올라、두어번 배미리를하면서 두발을 안으로뻐덧다。그리고는 「이」소리를 치면서뛰어내렷다、

럴석!

컨디숀이 낫벗든지、고도(高度)를잘못마찻든지 떠러지자 엉덩방아를 찌엇든것이다。

『누구요ㅅ』

안ㅅ방문이 와르르열리며 명레가 내다렷다。재호는 땅바에 두다리를 뻣고안진채『아이쿠』소리도 지를여가가업섯다。

『아닌밤ㅅ중에 남의집 담뛰어넘는게누구야ㅅ』

명레는 무섭게 독기가 빼첫다。

一拂牆花影動하니 疑是玉人來라!(西廂記)

[illegible]

의문이를 홱지나치드니 판장에가서 꽝!하고 부듸첫다、

『아이쿠-』

재호는 맛지도안엇스나 소릴이쪽끼쳣다。

『아이구머니 어굽니가빠졋네』

재처 또무어이 날렴을가두려워서 급방 죽는듯이 엄살을부렷다。

방문턱에나섯든 명레가 미다지를 깨여저라하고 닷고드러갓다。재호는 얼른 자기엽헤굴려떠러저잇는 괴물을 집어들고보앗다。

一===오 무서운수류탄(手榴彈)!강철을능가할듯한 방망이엇다。폭발될우려는업는것이나 울바로 머리통에드러마젓든들 머리가 대신폭발되고마럿슬것이다

一이런끔찍한일잇나!

재호는 방망이를 든채 이려서서 물기짝에무든흙을 대강터렷스나 살기가등등한 안해를맛대할일이 큰일이엇다

一또무슨일이 나고야말겟구나!

홀길한예감이 작고머리에떠도랏다。소리업시 마당을거려、소리업시구두를벗고、소리안나게방망이를 마루한구석에 가만히노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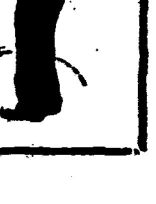
一세상업는일잇드래도 비위를극적어리지 마러야되겟다! 엇더케할까? 드러가서 머뭇머뭇하다가는 충돌이날테니 무슨도리가업슬까? 드러서자마자 시침을뚝따고 이불속으로 드러가는것이 상책이지!

그야말로 궁여지책이엇다。재호는양복조고리、조끼、바지、와이샤스、네타이할것업시 미리벗고、끌러서들엇다。그리고바로을바시시여럿다。다열어노코도 명레가 와락 달려들까해서 잠시한거름 물러서잇섯다、

一이옷을 벽에걸자면 시간이 걸릴테니…부지럽고、차라리 머리장우에 내던지고 바로 이불속으로 기어드는것이속하다!

재호는 명레가 내닷는기색이업는지라 한거름나섯다。그러나 문뒤에 부러서서 홍두깨를 들러메고 잇는것만가터서 머리끗이 쭈뼛햇다。

一뛰어드러갈까? [illegible]



三十一日(金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 一、齊唱 山아山아 二、齊唱 석동아 三、獨唱 다바머리 四、獨唱 흘각씨 五、齊唱 꼿 六、獨唱 어머니생각 七、獨唱외나무다리 八、齊唱 기러이집이 때꼬리會 指揮及伴奏 金泰哲
◇同六時五五分 常識講座 朝鮮의水産物(一) 鄭文基
◇同八時 講話 農業과宗敎(一)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눈물의각일 二、희롯대 三、님오실거리 四、靑春曲 五、꼿가시서름 六、님마지가자 七、남몰내타는가슴 姜石燕 伴奏 DK오-케스트라
◇同九時 歌詞 一、春眠曲 二、乾坤歌 金蓮紅 趙點紅 大笒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山念佛外 一、山念佛 二、긴난봉가 三、寧邊歌 四、京西巨里 五、방아타령 六、朴淵瀑布 鄭錦紅

六月一日(土曜)

◇午後〇時五分 楚漢歌其他 一、愁心歌와역금 二、楚漢歌 三、寧邊歌 四、朴淵瀑布 五、방아타령 六、夢金浦打鈴 金玉仙 細笛·高載德
◇同一時 野球試合實況 京城實業野球聯盟리-그戰-龍山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三〇分 하-모니카二重奏 一、序曲『天國과地獄』…오펜박호作曲 二、지나간넷날…베일리作曲 三、챗죽과拍車…알렌作曲 四、椿姬拔萃曲…베르듸作曲 五、軍艦行進曲…瀬戸口藤吉作曲 第一하-모니카 金生峰 第二하-모니카 許麟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七時 常識講座 朝鮮의水産物(二) 鄭文基
◇同八時 講話 農業과宗敎(二) 崔南善
◇同八時〇分 라듸오-드라마 新婚揷話全二景 放送劇協會 配役 젊은小說家(南勳)…李順宰 그의안해(玉禮)……趙明淑 美術學校生(英鎬)…朴政遠 老敎授(崔先生)……李牛進 아피-드下人……楊薫
◇同九時五分 小春香歌其他 一、小春香歌 崔蓮香 二、풋고초 金泰運 三、달거리 四、景福宮打鈴
◇同九時三〇分 漫談 朴風 庚秋岡

六月二日(日曜)

◇午後一時 野球試合實況 京城實業野球聯盟리-그戰-龍山球場으로부터中繼-
◇同六三〇分 童話 학금새 金福鏡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話 어린이로도라가자 梨花女專敎授 金仁泳
◇同八時 歌曲 一、界面頭擧 二、弄 三、羽樂 四、還界樂 五、編 金春姬 李桃紅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진양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楚漢歌 (나)唱劇調 水宮歌 丁南希 鼓手 池龍九
◇同九時 合唱 一、지뭇지뭇…모리슨作曲 二、아-사랑스러워…올스作曲 三、神聖한主님…프랑크作曲 四、내어머님…스말르作曲 五、主를讚揚하라…헨스버作曲 指揮 尹聖德 伴奏 金永義
◇同九時三〇分 音律 一、[illegible] 二、步虛子 風流 洋琴 [illegible] 大笒 [illegible] 奚琴 [illegible] 杖鼓 [illegible] 細笛 [illegible]

『續』『上』『踏』『靑』『記』……(9)

柳韶의千里長城

古城蒼林에춤추는새벽달빗

李殷相

저陸放翁의詩에「山居四月始聞鶯」이란것이잇스니 이는 嶺南의 深山幽谷을 알려주는 조흔詩句다。

우리가 이 溫井의 村家을차자들어 客舍에 자리를 잡고안즈니 어디선지 꾀꼬리소리가아롱다이 들려온다

果然 山이깁흐매 四月에 비로소 꾀꼬리소리를 듯는것인가 봐망의 風景이 어떠한지는 내가모르되 朔州의 深山幽谷이 저 陸游와 다를것이 업스려라

대개 溫泉의 鶯聲에 두가지가 잇스니 하나는 野地에 잇는者요 다른하나는 山谷에 잇는者다 이朔州溫泉은 後者에 屬하는것으로 저金剛의것 朱乙의것等과 아울러 同類의 種類이다

이山谷溫泉의 하룻밤이、心身에 차한 무겁을 다떨어주아라。

우리가안즌房에

물이커인다。 檻下에둘리안자 鼓三友와 打話하는맛에 서로辭하야 밤이깁흔줄을 알지못한다。

子正이 넘어 불을끄고서 자리에누우니 山窓에 비치어드는 달빗치 벼개ㅅ머리에와 무엇인지를 속삭인다。

同伴等은 코를구는데 알지못할 月光의 이야기를 듯노라고、한사람은 잠을이루지못한다、다만 多情한 所致다。이多情을 버려야겟다。

그리하야 나는 이抒情的哀想을 벗어나서 다시잠간 이곳의 歷史的考察한가지를 생각하는것이엇스니 그것은 저高麗時代의 遺蹟인 柳韶의 千里長城이다。

元來 世界的으로 有名한것이야 저秦始皇의

萬里長城일것이

毋論이다。 그러나 臨洮로부터山海關까지의 實際里數로는 二千里도 不足한것이니、當時의虛說에 달엇거나그러치안흐면이는 分明 저中國文人들의行習인 誇張으로말미암아어든뜻名에不過할것이 오더구나歷史的으로보아그것이 秦皇一人의 功業이 아니라 前代小封의 諸城을 連絡시킨것이라고도 볼수잇는것임에라

이제다시 朝鮮史를뒤저 남모르는가운데 우리에게도 秦皇의長城에 匹敵할만한 柳韶의長城이 잇슴을 記憶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니、이는 참으로 예누리업는 千里인지라 中國人의 計算式대로말하면 이도한 萬里長城이라하여도 모자할것이엇으리라。中國의 長城은 솟어나고柳韶의長城은 숨겻스며 秦皇의이름은

모두알고柳韶의

이름은 웨모르나? 朝鮮사람이 제것이라면 버리고 던지어不問不知에 부치엇이 이와가랏다。

저 高麗史兵志와 正宗時人旅菴申景濬의 疆界誌等을 抄하야 이柳韶의 千里長城에 對한것을 略述하리라。

高麗德宗二年(西紀一〇三三癸酉)에 平章事 柳韶에게 命하야 北境에 關防을 創設하고、옛날 高句麗의 都城인西海濱海內城界의 鴨綠江入海處로부터 起點을 삼아、東으로 威遠、興化、靜州、寧海、寧德、寧朔、雲州、安水、淸塞、平虜、寧遠、定戎、孟州、朔州等十四城을두르고 저耀德、靜邊、和州等三城을거처 定平의 都連浦(古都護浦)에 이르기까지、千餘里에

뻐친長城을싸흔

것이니、그것은 高麗가 다음담 二十五尺어나되는 壯觀이엇다。 因하야、北邊의 國民이 베개를놉히하고 하룻밤도 편안할날을맛이워보던 當時에、이民族의 愛國야말로 그熱情의 놀랏던것이다。

우리가 萬里長城은 말하면서 柳韶의 千里長城은 이저버리고 까닭업는 懷奏結果의 長城만 안다하은 實로 애달분일이다。 더구나 이것이 朝鮮史上의 代表的長城이자、頹廢를 表彰의 하나인것임에도不拘하고……

이런史蹟을 생각하는 사이에 버개에누운채로 헐어진 古城、옥어진 숲속에 새벽달빗치 神秘하한幽調로 춤추고잇슴을바라본다

小說의道

"토ー마스•만"의新作•其他

(五)…… 金晋燮

「붓덴브룩家」의토ー마스•만『魔山』의 토ー마스•만이 또한이제한자리이약이를말하기始作한 一人에關하나 獨文學最近의收穫으로서 이를

【到底】히 無視할수업는 두말할것이업다。그의新作이란 多彩한聖書의世界에서 材料를取한三部曲「요셉과그의兄弟」(一九三四ー)란 題目의小說이다。第一卷의題號는「야곱의이약이」요、第二卷의題號는「靑年요셉」이요 第三卷은어듸로이며 後日에將次나올 豫定이다。그가「요셉과 그의 兄弟」란 小說을 通하야 說話하라는것은 勿論누구나 다잘알고잇는

【舊約】全書속의「야곱과 요셉」의이약이에不過한다。그는 참으로「누구보다도 賢明한者」인까닭으로이極히도 平凡하고 도簡單한傳說을 再述하고 說明하고 註釋함으로 依하야서도能히 現代人의宗敎的樣式과 思想樣式에 一驚을聳動할수잇슴을 자랑하라는것이다。그는 그가元是小說家인 까닭으로 이를註釋함에잇서서 小說의 形式을빈다。그리하야 그는 어디까지의

【世界】에오죽 머물너잇슬뿐인 古傳說을 누구도가 맛지안흘수업는바ー作品으로 一大小說로 創造하라는 것이다。여기서 우리가「토ー마스•만」의 이러한 劃策에對한品位를 認識키 爲하야서는 오직 眞摯한浪漫主義者의 漠漠한藝術的意圖를 聯想치아니하고는 想像할수업는것에나 여것을與ー우리가 動物과 博學의寶典을聯想으로서만 보다면 그것은 참으로 不當한評價이다。 어마어마한 때서

【批難】의소리는 어려낫다。모든 그러의 連續한手段을 가지고도「토ー마스•만」은 드되어 聖書物語의「宗敎的敎訓性」에는 到達할수업섯다는것이 또批難의主要한者이다。그러나 이批難의要素는作者와 本事外에서는 全然이決定적인것은바 要求의尺度를가지고 그의 宗敎를 理解하려하야「宗敎的敎訓性」으로 말하면 一體로그것의 效果가퍼지고잇는

美學的

【特質】입에는 을넘업는것이지만 그것이이로 聖書의全部는아닌것이다。우리가또한 그反面에 聖書라는 宗敎的神話에依하야 理解하는것은 事實에잇서서는 적지안케複雜한 內容의神秘와豫言과 守護와 寓意等으로 그것이 들녀싸혀잇는 事實에對한認識이니 實로이모든것을 남김업시小說體로서 飛揚식힘이 『토ー마스•만』의 意圖이면 意圖인것이지例의 批評家群이 要求할과가튼素朴한寓話의 再說가튼것은

【元來】부터 그의關心事가 아니엿든것이다。이리하야「토ー마스•만」은 그의計劃을 여러가지方途에잇서서操縱하여가는것을 우리는 본다。그는 最初에 聖書에나타난諸事件의同時性(乃至無時間性)을 吾人의足下에까지 侵遷케함으로依하야 時間槪念의 確性을 자못動搖되게하며、그리하야 一個가間의 說話의範疇를 그것

各自의神秘로운 意味內容에應하야 規定하여가며、그리하야 그는 우리가아는바와가티

【著名】한 유ー모모리스트의 한사람인까닭으로 作中의만흔 人物을 或은 喜劇化하며、或은宗敎化하는것인데 그中에도 特히「야곱과 그의後妻「라ー헬」과의 最初의相逢은 참으로얼마나 驚嘆할場面에屬하는것이냐!그것은 理想化된風景과 羊群이 이르키는 몬지와、꼬리를치고잇는개(犬)를 가진 一의永遠히 敬虔한畵像이다。

나는「토ー마스•만」의 新作에對하야 더좀詳論하는바잇슨뒤에 새로히

【一項】지을 벌여어재까지말하여온 엇던作家와도 傾向을달니하는「한쓰•카롯사」와、獨逸의 注目할 新進作家「칼•벤노•봄•메호브」兩人의 新作을 紹介할 豫定이엇스나 이러한 紹介物은 長冗하면長冗할수록 讀者의興味를 끄을기어려울것가터 생각킴으로 이項에合치 簡單히論해버리고말기로한다。「한스•카롯사」는「문헨」의有名한開業醫로 그에게는 만흔作品이 잇지만 그의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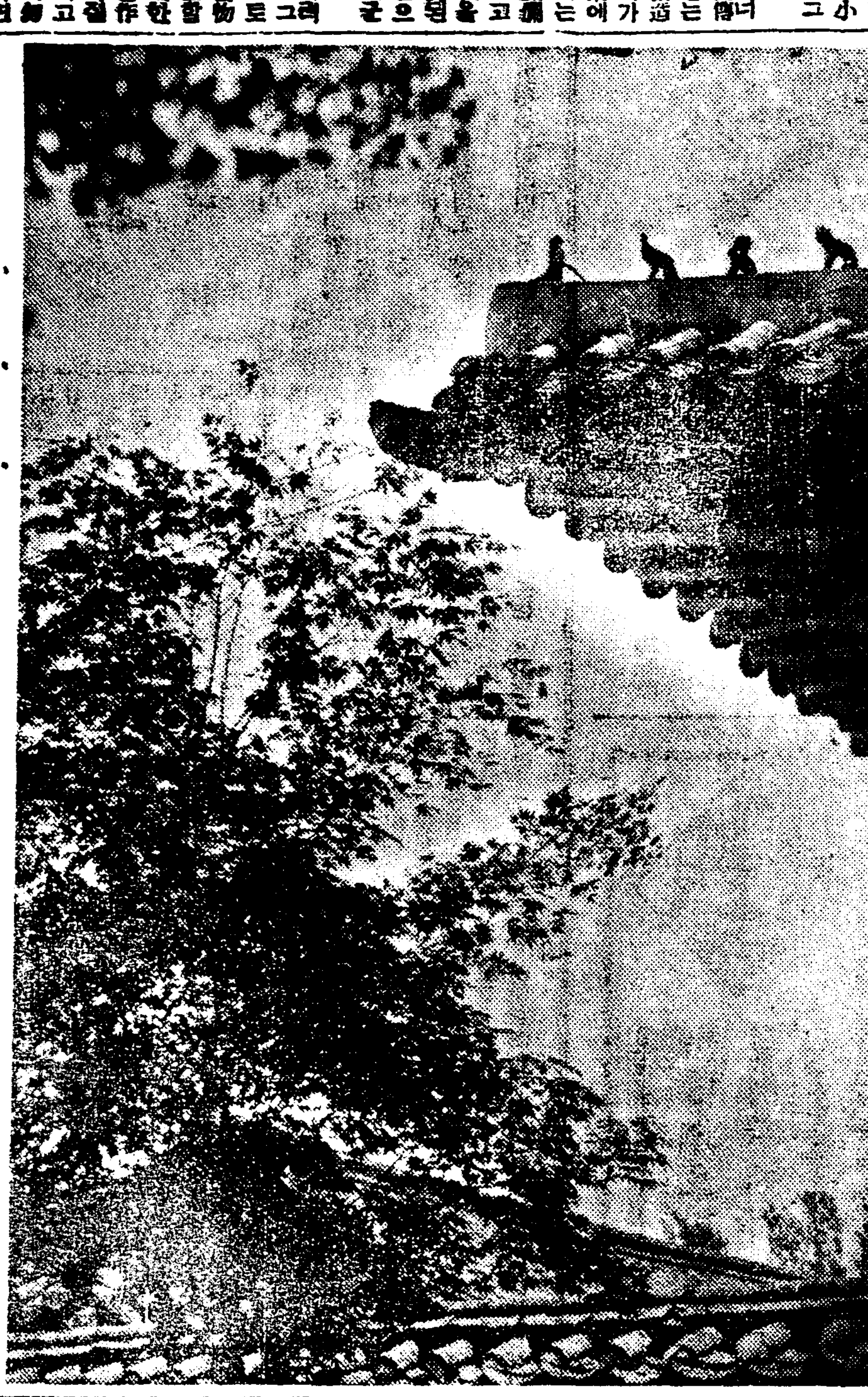
【作品】은 自己自身의 生活에 對한觀察에서 된것이다。그러므로 그는 우리가여긔獨文壇近來의 一般援으로서 推奬코저하는小說 指導와 同伴(一九三四)속에서나는 내 自身의生活의變遷以外에는말할 모자이업다 내게는 저發明的인 形成的인小說家의才能은 조고만치도업다」고告白하는것이다 이러한點에서 이小說家의讀者櫓은그를無限히尊敬하는一國과「私的」이라하야그의作을 排斥하는一國에 分離되여잇는狀態를보이고잇는것이지만

【勿論】두말 할것업시 前述의 小說도 兒童時代로부터 大節以後까지의 人間으로서의 그의體驗을記錄한것임은두말할것이업다 實로독카롯사」의散文小說은 現獨逸小說界에잇서서「괴ー테」의「마이스테르」型의 古典的敎育小說을 具現化한것이라하야 여긔特記할價値가잇는것이다。

最後로「메호브」를 一言으로紹介하자면 以上에말한作家全部가 六十에서 八十에이른年代의老大家에屬함에對하야 여긔호올로 그만은 三十八歲의

【野心】에가득한 新人으로그의作「初夏」(一九三四)는 참으로 珠玉가튼小說이라할밧게 말이업스니 그것은事實에잇서서 別로寄異한材料를 取扱한것이아니오 一鄕地의凡凡한戀愛事件을 敍述한것에不過함에도 不拘하고 이러한日常生活을通하야 能히永遠한相 그것을 보여고잇는까닭이다 우리는 이新人의小說道에 對하야 實로만흔것을期待하여도 조흔하나의希望을가지면서 이散漫한紹介物에結末을짓기로한다。

(이論稿는特히獨文誌「文學」一九三四年九月號(W. E. Süskind: Wege der Erzählung)에參照한바잇섯다。)



손오공의꿈도……ㄹ다

文學과豫言的機能

5……金翰容

어것이文學이 人心을 救濟하는 道理도되거니와 人生을裝飾하게도되고 豐饒하게도하고 向上、發達케하야 人類理想에의一步一階를 내어드디게하는 道理인것이다 그러면 文學만이 이러 機能을가지고 잇느냐?그것은 上段에서도 論한바와가티文學만이아니라、諸般科學과學問이 다그러한意味의 活動을하는것이겟지만 文學도社會生活의 一分野로서 다가티 그機能을 發揮하고 그使命을다하는者이지만그 取하는 方法이다른단말이다。文學的 獨特한方法으로서 하는것이다。다시말하면 表現方法이다르단말이다 簡單히말하면

文學的表現으로서 한다는것이다。文學的表現이라함은 社會生活各分野의 表現과對立되는것이니 卽 文學的表現은 첫재 生活을再現하여야하고 그表現은 抽象的表現이아닌 形象을빌려서 하는眞實的表現이라야한다 우리의 創造的想像力을 擴張하야人類의모든生活 乃至는 過去現在未來의生活 樣式을는 모든時間의 生活形態、 그리고도 그것은外的生活뿐만아니라 思想、感情、情緒、信仰、慾望等의內面的生活에 이르기까지、모든人間의生活을呼吸이잇고脈搏이잇는 한有機體로만들어 죽은것도살리고 過去도 現在로맘들어서그것이現實에 살아서 活躍하는것과가티 우리에게 興味를주고 생각케하고 늣기게하고 웃기고 울리고 落膽케하고 希望을가지게하고不正義不에對한義憤도가지게한다。이리해서 다른學問이 眞으로써 우리의理智에 呼訴하는 代身에 文學藝術은 美로써 우리의感情에 呼訴케하는것이다。더구나藝術家의보는態度는 實際生活의態度가아닌 傍觀者、觀照者的態度이니 實際에 直面한者는 그小局에 눈이어두워 大局을 그르치는 일이만흠으로 小局的現實에 拘泥되지말고 한걸음나서서 觀照的態度로써 大局을 살펴서 그全圖에 의짐업고 틀림업는觀察을 보살피려는者이다。 그러면서도 純眞한 藝術家의 心境은 항상 積極的同情잇는 同伴者의 立場을가지고 生活을 洞察한다 올라 同情的洞察、同情的理解업시는 生活의眞相을 說明、解釋치못한다、同情만이 時代와 人心의 核心에 부드칠수가잇다。어와가티하야

創造한世界속에서 우리의 生活을보고 變化와、進化의源泉을 보고 理解할수가잇스며 그社會의 形態感를 眼熟히 늣길에있으면서 그時代를 잡자 알슬일수잇는 어떤 말엇든지、潛勢力、어떤暗示豫言을 늣기고 들을수가 잇슬것이다。

文學이 文學的表現 乃至 活動으로 人類戰線에 參加한다는것은 上述한바와갓거니와 이와가티해서 文學은 늘 希望과理想과 指導原理를 보여주면서 우리를鼓舞激勵하야 未來에 보담나흔世界로 邁進케하는 機能을 가진것이다。다만 注意할것은未來만을重視한다고해서 過去、現在가 全然 등閑必要와 價値가 업다는것은아니다 過去를 깁히

硏究함으로서 社會進步의 原則을 發見할수가잇고 現在를 理解하고 批判함으로서 바른傾向을 把握할수가잇다。理想이란 結局「弄예니러」나 人類學的立場에서 過去와現在를 硏究한結果에 不外하다 그러므로 未來에서의 躍進、飛躍을 꾀하려면 그만큼 過去와現在를 正確히認識하고 理解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그러나 過去와現在의硏究와 理解가 決코 過去現在를爲해서 하는것이아니오 未來를爲한것이라는것을 忘却해서는안된다。여긔에서 나는 文學의 暗示 乃至 豫言的機能을 重視하자는것이오 文學的表現과活動이 이곳에 重點을 두지안흐면 안되것다고 力說하는바이다

海外뉴ー스

米國에서二百人이 피아노大合奏

【쌀사(오크라호마州)發 聯合郵信】百臺의그란드•피아노를一堂에모하노코 二百人의피아니스트가 二千의손가락으로 同時에演奏한다는快事 米國오크라호마州 쌀사에서잇섯든일로 지난五月初旬에同市公會堂에서行하엿다。演奏者二百名에對하야 피아노는百臺인고로 一臺에二人식나란히안저演奏한바 그練習이대단하야할사大學音樂敎授의 보이드린고ー氏夫妻가指導하야 實로七個月以前부터 演奏曲目을 練習하야어만하면조흐리라할때에 一同을一個所에모흐고 演奏練習을五十二時間동안이나하엿다 피아노調律師만이 그동안三十五人이常備되엿다니까 그러케우술일이아니다 그러나 그成績이어쩻느냐하는데는 아모런記述이업스니 시원치안헛든모양

東京•學生藝術座第一回

公演을압두고

—그한사람으로서의所感—

金鎔吉

이글은 한會員의 立場으로서 나個人이經驗하고 어든所感을씀러는데 不拘하다。그外 다른希望은업다。

東京學生藝術座가 誕生한以後 이번公演이 그處女公演이다。그러고보니 이것이 學生藝術座가 처음으로 實際行動을 試驗하는 所謂 第一回試演이다。

理論的立場에서만 硏究함이우리들의 目的이아니엇고 또그것만으로 到底히 滿足을늣길수업는 우리는 마참내 不足한點과 不充分한點이 만타할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이모ー든 難關을 우리의 피끝는熱誠으로 이기고 이겨나가 熱情的이 한테모혀서 白熱과가티 每日 公演準備에맘을졸이고잇다

× ×

實行劇團으로除外하고 朝鮮의참따운劇文化運動에 參與하고잇는 劇團體는 오직하나 劇藝術硏究會가잇슬뿐이다。朝鮮의참된 劇藝術을樹立하고저에쓰고 演劇文化建設에努力하든「劇硏」도 요즈음은 沈默을직히고잇다。

朝鮮의劇文化는 모로보나 세로보나 沈滯의둘릴속에서 暖暴할뿐이다。

더구나新劇運動의 消息이끈허지고「劇硏」조차 沈默을직히니 이땅에는 暴風前가지나간後처럼 잠잠할뿐이다。

[illegible] 수업는 이때ー

우리는 [illegible] 여히 反旗를들고일어낫다。勿論 우리들은 全部가 머리에다 校帽를쓰고다닌 學生들이다。世上에서或 諸氏들은 가여운우리들을 우숨먼지도알수업다。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無關心하고 公演에힘을쓴다。한두사람의 嘲笑에 우리로서 마음을상할必要도업거니와 關心할바조차 못된다고生覺한다

우리는 우리들의「스로간」아래

「朝鮮新劇의 樹立은創作劇에서!」

서眞實히 充實한硏究를하고 熱誠으로努力할뿐이다。그리고 그 硏究와熱意의 되엄으로 비저진 作品들 大衆앞에내노아 우리의 目的을 遂行할수잇다면 우리들의 希望과 기쁨은 그것뿐이다 도이것이야말로 眞實한朝鮮劇文化樹立의 第一步가안일까한다。

現在우리(學生藝術座)에게는優秀한戲曲을쓸만한 劇作家도업거니와 優秀한演出家도 못가젓다 그리고 舞上裝置家도업다 演技者도업다 그러나 이모ー든缺點을 우리의熱情 硏究過程에서 피와땀으로우리의 優秀한作家와 演出家를 洗鍊된俳優를 길러내일것이다。그것이 또우리가하여야할 急先務이다

×

「朝鮮에는 舞臺에 上演할만한 脚本이업다ー」는 理由에서 되回안되는公演에 흔히 外國人의作品을 飜譯하여 上演해왓다。이것은 創作劇을 無視함이안이고 上演할만한 素本이 업기때문不得己飜譯劇을 잘上演하여온것이다。

朝鮮新劇의 樹立에잇서 創作劇이 絶對的으로 必要하다함은 그래도 演劇에關心하고잇는 사람으로서는 그누구를 勿論하고 다가티 늣기고 다가티 確信하는바이다。

朝鮮의現實과 朝鮮의 事情을 이땅의 民衆에게 傳達할려면오직創作劇을 上演하는데잇다。

이번 學生藝術家第一回公演의「레파ー트리」인 柳致眞作「소」와 朱永涉作「나루」는 眞實로朝鮮農村의 現實을 가장잘表現한 優秀한 戲曲이라할수잇습니 우리는 이두作品에서 아모로 農村의 現實을 잘理解할수잇는同時 朝鮮의現實도 가장잘배울수잇다고 나는밋는바다。

더구나 우리가나은 젊은劇作家朱永涉君의 將來를 다가티囑望하기바란다。

아무코우리는 眞實한 硏究的立場에서 이公演을 갓게된터입으로公演을압두고 몃마듸말해두는바이다

나 루 (一幕)

朱永涉 作•演出

舞臺監督 尹䂓燮

配役

장손이……李井鎬
장손하라버지……金正好
울재하라버지(劇研)……金一英
입분이……河玉媛
입분이고모……張桂俊
七石……馬完英
柄植……金義浩
셋재……洪南濤
吉甫……金東爀
바위……朴永福
거지……李錫重

소 (三幕)

柳致眞 作

演出責任者……黃
舞臺監督……朴東爀
演技指導……南 實

配役

國瑞……尹䂓燮
그의妻……尹和春
말똥이……(劇研)金一英
개똥이……金東爀
蔚參……金義浩
귀찬이……河玉媛
귀찬이父……全銘吉
舍音……金正好
黑三……張桂俊
유자나무집셋재딸……馬完英
文書……康韶潭
留儀……洪南濤
소장수A……朱永涉
소장수B……金鍾壽
소장수C……韓笛仙
金進下人……朴永福
일꾼……李錫重

第三回全朝鮮男女『專門學生雄辯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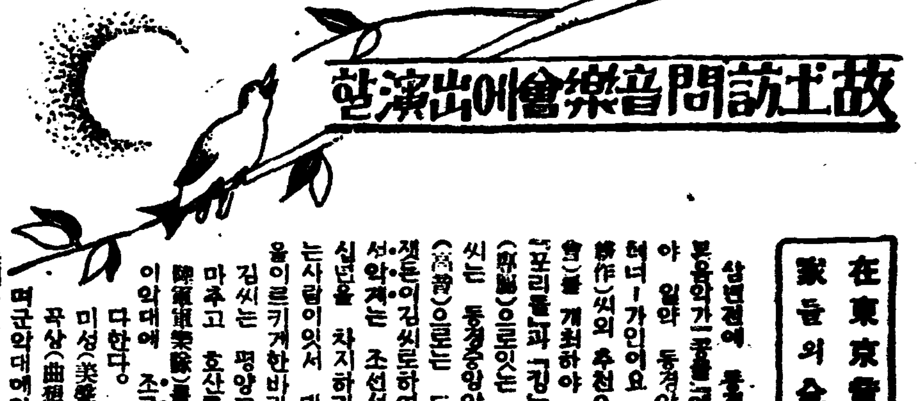
六月二十二日(土)長谷川町公會堂

『原稿提出』六月七日까지『佛專學生會』에

主催 中央佛敎專門學校學生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詳細追後發表)



故土訪問音樂會에出演할

樂壇의驚異

테너ー歌人 金永吉氏

在東京音樂家들의金說 (13)

상년전에 동경에서 개최된 일본음악가콩쿨에 입선(入選)되야 일약 동경악단을 경동케한 테너ー가인이요 산전경작(山田耕作)씨와 추천으로 독창회(獨唱會)를 개최하야 호평을바덧스며 「포리돌」과 「킹」두회사의 전속(專屬)으로잇는 김영길(金永吉)씨는 동경중앙악단에서도 고음(高音)으로는 드문이리한다 엇젯든이김씨로하여서 동경악단의 서악계는 조선의악가들이 이후 신면을 차지하리라고 예언도하는사람이잇서 대단히 센세이순을이르키게한바라한다。

김씨는 평양고보(平壤高普)를 마추고 호산육군악대(戶山陸軍軍樂隊)를 나아와 그뒤에 이악대에 조교수로 피임되엿다한다。

미성(美聲)의주인공이요 곡상(曲想)이비상히풍부하며군악대에잇섯든만큼 별다른기을보혀주리라는데 우리악단의큰자랑이라 할수잇다。

능라도의 아름다운풍경을 에워싸고 흐르는대동강수의 물소리가 김씨로서 조선의 가인(歌人)으로 선택하게한 바일것이요 부벽루머리우에 걸린달이 김씨의 그천재적목소리를바치게 하엿는지도모른다。

★…조물주에게선대바든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역사기픈 아름다운 풍광이아무런영향이 업섯다고 할수는업는일이다。

고ー리키ー를論함

(7) 고ー리키ー號墜落의報를듯고

咸大勳

이런 內面生活에서 잇서나「파마가르데ー예호ー」와 共通된人物은 一九〇〇年에쓴「三人」의主人公「일리야•론노ー프」에서도 發見할수잇는것이다 그러나「일리야」는 벌서 商人社會에서가안이오 小市民階級의出身으로 부르주아生活에서 安逸한 理想을 向하야 邁進하고잇다 그리하야

그의空想은 結局 實現되여 그는 어떤 玩具商主人이된다、처음에는 이것이 그에게 커다란 滿足을주엇고 또 그의生活을마ー치 그의 寢臺우 에걸려잇는 그림과 가치 愉快하게 지낸다 그러나 歲月이 흐름김을따라 그는 悵[illegible]나 못플고잇는데 滿足를 失기지못하고 自己의生活의理想이 부질업는것을 깨닷는다、그러나 그러타고 그어떤새로운 理想을 갓지도 못하고 그는 悲劇的最後를 마치는것이다。그는 머리를 壁에부듸처 自殺하는것이다……이리하야「고ー리키ー」는「파마ー가르데ー예호ー」와가튼 商人社會가운데서나、「일리야」와가튼小市民階級에서나 生의

建設者를 發見치못하엿다

그러나 이러한「고ー리키」의作品生活은 一九〇〇年 以後 智識階級의 世界에서 廣汎한 描寫로 向하여 主로서 戲曲形式을 選擇하엿다、人生의밋바닥의 零落된 浮浪漢을 取扱한「나、드네」를 除하고 其他의戲曲 例를들면 一九〇一年에쓴「小市民」이나 一九〇四年에 쓴「別莊의사람들」에서나 또는 그翌年 一九〇五年에 쓴「太陽의子」에서나 또 一九〇六年에쓴「野蠻人」에서나 고ー리키는 智識階級과 [illegible]업는 부르조아 生活을 描寫하야 그無氣力하고 意志薄弱한그리고야ー모 情熱도 업는 그러고 [illegible]의 사람조차 [illegible]수업는 性格을 容赦업시 暴露하엿다 말하자면 그는 智識階級에잇서서도 生의建設者를 發見치못하엿다 그러나 戲曲小市民은 一九〇二年에 上演하야 커ー다란成功을하엿다 個人主義와 小市民性과의 對立律은 이作品에잇서서深刻化하야 從來認定되여오든過程이 점점 發展되엇다 그리하야

第二期 作品 特히 戲曲은 專히 智識階級이 對抗하엿는데 그는 얼마하지안허 政治的乃至 社會的生活의 圓熟과 그自身의 思想의發展에依하야 그는 社會民의 唯一한 敎導者로서의 勞働者의 出現에 注意의눈을 보내게되엿다 이것이 明白하게自己가 늣기게되자 그는 藝術家로서 相應한

誠意를 갓고 直時勞働階級과 社會民主黨편이 되엇다。이러한 心的變化는 一九〇七年에 쓴(敵)을 보면 넉넉히 알수잇는것이지만 이作品에서「고ー리키ー」는 처음으로 産業的勞働者와 資本家와의 闘爭을描寫하[illegible] 이作品으로 文學的生우리는 「고ー리키」의 文學的生活의 第三期를 區分할수잇슴을 로잇는다

「고ー리키ー」의

第三期 的文學作品인 어머니는「코ー리키ー」自身의새로운 經驗에依해서 勞働運動의實況한 光景을 그리엇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作品은批評家들의 非難의的이 되여잇섯다 그것은 이作品에잇서서「고ー리키ー」의 天才的閃光이 적어젓다는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作品이 가지는 勞働運動者와 그어머니를그린 그作品은 讀者에게「에밀」하는것이아녀 世界無産階級의 愛讀書가되엿다 그리하야各國語로 飜譯되여行하는 數百萬部를 突破하게까지되엿다

그다음 一九一〇年에 이르러는 수혀 다른 方面으로부터社會關係를 取扱한「懺悔」를쓰엇다 이것은 勞働者의 物質的乃至

法律的 地位를 改善하려는것이 안이오 宗敎的 寂慕에 集中되어 一九〇八年으로부터 一九〇九年에 이르는동안에 이러난 政治的乃至 社會的反動時期에 잇서서 宗敎問題가 智識階級間에 特殊한 興味를 갓게 만든것을 取味한것이다 그이두가지 作品은「고ー리키ー」의第三[illegible]代表的作品으로 밋로 그의文學的生活에잇서서 밋나는 金字塔을 쌔하노앗거니와 世界大戰의直前「고ー리키ー」의文學作品은 新次 回想的인 作品으로 移轉하거되 엿다 이것은 年齡의 關係일것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의文學的生涯를 第四期로 볼수잇는것이다。

이 時期 에 屬하는 作品으로는「오크롭조푸市」(一九一〇年) 그의 題目으로볼수잇는「마로베이•코제마킨」을 翌年인 一九一一年에 쓰엇다。

그리고 一九一三年에는 幼年時代「사람들 가운데」를 著作을 開始하야 알타모ー노프家의事業」諸作을 쓰게되엿다。最近에는「에고르•불리쵸프其他의사람들」이란 戲曲을 發表뿐 創作에는 손을끈코잇지만 그는 文學藝術에 恒常 [illegible] 昨年五月 [illegible] 文學的大論戰을 開始하야 昨年九月에열린 쏘베ー트作家大會委員長으로서의 任務를 遂行하는同時 同大會席上에서 쏘베ー트文學에對하야 한長時間의演說은 크게 價値잇는것이다 그러하여 그의 文學的生涯는 오늘날까지 眞實한 良心的態度에서 繼續되고잇다

이리하야 쏘베ー트聯邦에서는 그를 老大家로서 民衆의 指導者로서 推戴하고잇거니와 그리하야 쏘베ー트政府는昨年에「마심ー고ー리키」機까지製作하여그의 文學的業績을 좀더 놉히讚揚한것이다

今年의 나히 六十七ー 그의 生涯도 머지안헛슴것을 생각하니 感慨가 또한 깁거니와 그의 多彩한 文學的讚業이 날을것을 생각한다면「生命은 짧고 藝術은길다」는어떤詩人의 一句로 滿足해도 조흘일이아니냐? 멀리 氏의健康과努力을 빌고 이 朝鮮 의 論文學徒의一人인 나는 氏의 文學的功績에 讚意를 表하는同時 今番「고ー리키」號墜落의報를 삼가 弔慰하는바이다 (完)

朝鮮美展寸評 (5)

西…洋…畵…部…

金繪山

鄭用姬氏「新綠」「歸樵」

靑田의素朴、?한風景의新綠으로「다방」는하야파룻한것은 女性답습니다

「歸樵」를의描寫에잇서서 靑田을解釋치못한것갓습니다

좀더 師匠에게 배와쓰면요?

崔寅鉉氏「東明」

간날의 氏의名聲을차저보기어려운 東明입니다。

李象範氏「[illegible]」

氏의名聲이곳에 宣傳하지안허도누구나모다알것입니다

裵濂氏「溪山雨霽」

모든랑나무에새싹이눈트고、까츠런荒蕪地에開墾이잇기를바랍니다

李用雨氏「雲雨淸暾」「山雨朝秀」은좀더靑田에게修業하시라는것은 東洋畵家의 美文麗句그러한 學識을부리워하는바입니다

金景源氏「秋溪晩晴」

나는 깜바 이作品에對한記憶이 업습니다

白潤文氏「憤怒」「葉鷄頭」

憤怒보다는 明朗하게개인날씨

鋼鐵가잇고、잠자리 가날느는압들에서 고요하게 畵心을길느는 것이 부러운일입니다。

李英一氏「洋犬숨긴」

花、鳥에쓰는 技倆으로 개를描寫할수는 업슬가요?

作品에對한 感想은 俄偉氏에게 詳論한바이그로 이곳에적지안습니다。

兪浩濬氏「晩秋」

靑田의存在가偉大한以上氏의盜采은美展에서否認되기쉬울것입니다。

李景九氏「紙育所見」

純粹藝術問題가 流行하는 近來에 氏의「紙育所見」은 히야까시에 지나지안습니다

鄭英鎔氏「少女」

可憐한少女가朝鮮의民族性(?)乃至鄕土性을 標榜하고 美展會場에 쪼그리고 안저서 大端한人氣와 宣傳을어든以上 筆者가이제새삼스럽게 할말은업습니다다만 閨秀作家가적은조선에서는無條件으로 氏의存在를尊敬하는바이며 좀더人間的으로 修業을하야 아름다운趣味를갓기를期待하고십습니다

氏의「少女」는 傑作입니다。그만하면 남에게干涉이나 同情을밧지안허도 훌륭히向上할수가잇습니다。

自重自愛이잇기를!

【小品】• 새 벽……(4)

【三題】 『나브렌지K의追憶』第三片 『七』…愼弦重

여기까지「나브렌지K」는 심심치안케 나의 이야기를 듯고잇섯다

「그후에 나는 그녀자를 두번다시 맛나보지를 못하엿습니다」

멀리 그녀자를 추억하는 나의 이말이 끗나자마자「나브렌지K」는 벙긋이 우스면서

「내가 그녀자를 알겟습니다」

「그날 그시각에 그러한녀자가구룡산을 갓다고하면 내가 아는 녀자입니다」

이말을 듯고 나는 [illegible] 그녀자의 정체를 물엇[illegible]나 그는 다만 미뭇수도업고안미뭇수도업는 다음의말을 할뿐이엿다

「그날 구룡산식장에서 그녀자를 맛낫섯습니다 나의처제되는 그녀자는그날 나에게우산빌려준 고마운혀생이야기를 하엿습니다 그래고그녀자는지금 우리의집을압서서 떠나고잇습니다 빨리가면 그녀자를 맛날수잇습니다 자아 해정을 차리시요」

두사람은 어려섯다

이때에 때시한점에와 항랑과려조흔가 멀리 鐘聲이 들려……(完)

新刊紹介

▲幼年畵報 五月號平壤府新陽里一五 一千号童社發行 振替京城一八七〇番 定價十五錢

▲光의世界 牧師 李學鳳著 平壤府新陽里一五〇 紀新社發行 定價二十五錢 發賣所京城鍾路耶穌敎書會 振替京城四〇八一番

▲新世界 第四十六號 京城公平洞五五 少年世界社發行 振替京城六二四九番 定價五錢

▲카톨릭靑年 六月號 京城府明治町二丁目一 카톨릭靑年社發行 振替京城一二三四六番 定價十五錢

未決呻吟三個年 平壤"赤勞"公判
最高四年으로부터 一年半까지
言渡는 오는 六月六日

【平壤】 긔보=이년개월동안만에겨우 예심이종결되는 동시에 공판에회부되엿든 적색로동조합 사건 리성철(李成哲)(二三)외 륙명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의 제일회공판은 삼십일오후한시부터 평양지방법원형사정에서 목포(木浦)판사주심 서전(西田)관생(菅生)량판사배석 암성(岩城)검사립회로써 개정되여 방청금지리에서 심리를마친후 오후네시경 암성검사는 다음과가티구형하엿는데 판결언도일은 륙월륙일 이라하며 피고리성철 김원복량인을제외한 다섯명은 보석중이라 한다

李成哲(二三) 懲役 四年
金元福(二七) 同 二年
許子煊(二七) 同 一年半
鄭相謨(二二) 同
崔鳳祚(二三) 同
宋潤瑞(二四) 同
林龍雲(二八) 同

이번에는 모든것을 편리토제 요자금을 전부준비하여가지고 최후로 도쿄국에 진정키로되엿다는바 일반은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하여 마지안는다고한다

執猶로出獄하자 또다시窃盜질

【大邱】 자전차전문절도상습자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로출옥한지 얼마못되어 또다시범행을 계속하다가 경찰서의 신세를지는 자가잇다 부내원정(元町)이정목 자전차영업바구장자외근(裵根)(二三)은지난이십칠일 오정에부내수정(壽町)송부성(宋富成)의집에 침입하야 자전차를절취하야부내 모상점에 팔려다가대구서원에게 체포된것이라한다

長津郡農家負債 廿餘萬圓을突破
每戶當平均五十七圓

【長津】 함남장진군일대는 량년간 미증유의흉작으로 막대한곤경을당하엿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이제그들의 부채를조사해보면 사천상백구십칠호에 이십오만이천사백사십사원이라는데 매일호당오십칠원여로 그자서한동계는다음과갓다

▲生活困難 一六二戶 負債額 一〇九、八七五圓
▲疾病天災 三三三戶 三一、八七六圓
▲事業失敗 一三三戶 三一、七三九圓
▲冠婚葬祭 三〇六戶 一二三、四四圓
▲飮酒賭博 六二戶 四、一一九圓
▲其他 四〇九戶 四〇、四八九圓

이중에 삼백원이상의 부채액을 짊어진호수가 백십구호에오만륙천상백여원이라한다

個人庭球大會 本報支局後援

【大浦】 강원도대포항(大浦港)운동구락부(運動俱樂部)에서는 본보대포지국후원으로 전양양개인정구대회(全襄陽個人庭球大會)를 다음과가티 개최하는바 다수의참가를바란다고한다
一、時日 六月十六日
一、場所 大浦普通學校
一、參加金 一組 五十錢
一、申込場所 本報大浦支局
一、申込期限 六月十五日까지

京城視察團募集 本報江華支局主催
六月十六日에出發

【江華】 본사신축락성식과 신문전람회를긔회로 본보강화지국주최와 화신강화련쇄점(和信江華連鎖店)의후원하에 오는륙월십륙일에 경성산업시찰단원을 모집하는데 참가회비는 일인이상원이라하며 이긔회에다수히참가하여주기를바란다고한다

出發=六月十六日午前七時半 江華邑出發 午前十時半京城朝鮮日報本社着 本社新聞展覽會見學 午前十一時半 昌慶苑、秘苑 同十二時半 中央試驗所 午後一時半 朝鮮製絲株式會社 同二時十分朝鮮總督府、博物館 同三時半 永登浦朝鮮麥酒株式會社工場 同七時 江華邑解散

沙下面民大運動會

【釜山】 사하면민대운동회(沙下面民大運動會)는 사하면유지제씨의발긔로 예정과가티 지난이십팔일오전팔시에 사하공보교운동장에서개최되엿는데 모인관람자가 무려오백여명의대성황을일우엇다고한다

私設學術講習會 聯合大運動會
本報淸州支局主催

【淸州】 청주지국에서는오는단오에 제이회사설학술강습회련합운동회(私設學術講習會聯合運動會)를 명중행사인 작년의례에의하야 금년에도 단오일에 거행하리라는데 의식주에 주림과가리는 운동에도 주리는무산아동의 단체를련합하야 운동회를 거행하는이만치 무산아동에 잇서서는 두번업는 조혼긔회인지라 벌서부터 참가신입총수가 작년보담도 훨신만흐며 아동수도 무려이천오백명을 초과할 예정이라는바 미리부터이긔는큰게비둥하고잇다한다

▲柳雲赫氏特志 이런합운동회에잇서서 특별히 소개할 조혼소식이잇스니 그는 청주본정일정목에서 근이십년동안 지물상회를 경영하야 목하청주제일의 지물상점으로서또제일의인쇄소로서 전도양양한씨는 교육사업에도 착안한바잇서서 금번본보청주지국에서 거행하는 운동회에 크게감동한바잇서서 금년부터 압흐로매년 동회경비의대부분을 동씨가부담하기로 되얏다한다

五等五人 各一圓

蘆洞公普校의 學級增設運動

【鍾城】 함북종성군로동공립보통학교(蘆洞公立普通學校)는 현재 겨우 삼백여명의아동을 수용할뿐으로 해마다늘어가는 학령아동의 절반도 수용치못할뿐외라 교실이 매우협착하여 학교당국은 학급증설운동을 면민일동과가티 하여오든바 아직 목적을달치 못하엿스므로

醫科學者를울리는 朝鮮特產인水癌
平醫專에서또發見

【平壤】 평양도립의원치과실에는 이십구일 진긔한 환자가 진찰을바닷다 세살된 조선인남자아해로 치근(齒根)이썩어지고 마는수암(水癌)이라는 무서운병인바 이수암은 지프테리아, 장질부사 마진, 성홍열등 열성(熱性)전염병에 걸리엇든 삼세로오세까지의 유아(幼兒)에게발생하는 병이로 때로는 십오세까지의아동에게도 발병되는것이라한다 그런데 이병은 동양천지에서는 조선에뿐만잇는것으로 병원체(病原體)는 아직알수업는독특성을가진것이다 이병의 진행은 신속하여 약중이면 하로동안에 치근전부가 썩고 볼다구에 구멍이 뚤려지는동시에 농즙(膿汁)이 목을넘어가기때문에 페염(肺炎)까지일으키는 엇절수업는 난병이다 매년이런종류의 환자가도립의원에서 치료를밧는수는 십수명으로 금년에도발서네명채이며 학계에서는 흥미를 가지고연구중이라한다

長津水電貯水地 收用申請遂裁決
關係土地七七萬坪에 地主一三五名
三十日附道報로告示

【咸興】 장진강수전회사(長津江水電會社)저수지용지 칠십칠만평에대하야 동회사로부터 수용령재결신청을 함남도에 제출하엿다함은 긔보한바이니와 함남도에서는 그를수리하기로 결정되여 삼십일부도보(道報)호외로공고(公告)를하엿는데 공고기간(公告期間)은 오월삼십일부터 륙월이십구일까지 일개월간이며 재결기간(裁決期間)은 륙월삼십일부터 칠월십삼일까지 이주일간이며 수용(收用)집행긔일은칠월이십일인바 면적은칠십칠만 팔천사백평 이전물건(移轉物件)은 일백이십륙건이며 관계인수는 일백삼십오명이라고한다

蘭井簡校開校式 【江華】

강화군교동면란정간이학교는 지난이십오일 강화군수 조중헌씨이하 일반유지제씨의 림석하에 성대히 개교식을 거행하엿다한다

轉向者膺懲事件
李逈鎬에六個月
咸興法院서言渡

【咸興】 지난초순에 함남신흥서 고등계에서 돌연긴장하여 동군 가평면룡리(加平面龍里)에서 청년이십여명을 집중검속적으로검거하여 엄중취조하다가 혐의가 박약한십구명은 전부 석방하고 지난이십일일에 리향호(李逈鎬)한사람만 함흥법원검사국에 폭력행위취체위반으로 송치하엿다 함은 그보와갓거니와 지난이십팔일 함흥법원에서 죽석(竹石)판사와 미원검사의간에로 공판이개정되여 미원검사로부터 징역륙개월의 구형이잇슨후 죽석판사로부터 역시징역륙개월의즉석판결이잇섯다한다

咸興商業會主催 市民大運動會

【咸興】 함흥상업회주최의제사회 시민운동회는 오는륙월일일 함흥상업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결정되여 방금동회에서는 만반의준비에 분망한일방 각정(各町)에서는 맹렬한긔하여주야맹련습중인데 미리부터 대성황을예상한다고한다

全鮮弓術大會 盛況裡에閉幕

【大邱】 대구궁도회(大邱弓道會)주최와 삼지국후원하에서 지난이십오일부터 부내령선지『靈仙池』에서 전조선궁술대회를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우천으로 하로를 연긔하야 지난이십구일오후 륙시에원만히맛치엿다는데 우승자는다음과갓다한다
◇男子部 一等李文華(光陽) 二等鄭常斗(南陽)金正乘(麗水)
◇女子部 一等金月色(晉州) 二等韓石蘭(馬山) 三等金松竹(慶州)

地方人事

▲金弼濟氏(溫井普校訓導)新任人事次本社古場支局來訪
▲劉永朝氏(金郊驛長)汶山驛轉勤人事次本報金川支局來訪

白雲簡易學校 開會式大盛況

【鍾城】 귀성공립보통학교 부설백운간이학교(白雲簡易學校)의개교식은 거이십칠일 오후한시부터 당지가교사내에서 관민유지백여명참석리에 성대히 거행하엿다한다

土砂崩落으로 인끄라인線不通

【咸興】 이십오일부터의강우로인하여 신흥철도(新興鐵道)『인크라인』선(線)은 백암산(白岩山)고면소흥리선로상에 산붕(山崩)이되여 토석이차이엿스므로 이십륙일오후한시부터 운전불능이되엿는데 목하응급수리중이므로 곳개통되리라고한다

生活難을悲觀 中年男子自殺

【淮陽】 회양군란곡면현리(蘭谷面縣里) 삼천동부락 박내봉(朴乃鳳)(四〇)은 지난 이십칠일밤에 동면유도리압고개에서 배나무에 목을매고 죽엇는데 그자살한원인은 가족은만코 빈한한살림을 겨우하야오던바 아모리하여도 시원한 세상을볼수업다고 비관하고 아이들을 잘양육하여달라는 유서한장을 남겨노코 그와가티 사십일세를일긔로 불귀의객이되엇다한다

善山支局主催로 市民大園遊會

【善山】 경북선산군귀미지방은경부선중앙지대에잇는 적은도회지로 시민전체가 일상생활에골몰하야 하로의위안이라도 드리기위하야 오는단오일에 경북금강인 금오산록하천변녹음속에 전시민대원유회를 본보선산지국과 동업만몽지국련합주최하에 귀미동우회후원을 어더 개최하기로결정하고 지금그준비에분망중인데 이날은대성황을예기한다고한다

三校聯合 陸上大運動會

【大田】 본보대동지국후원으로대흥군사립신우(信友)학교 신흥(新興)학교 숭인(崇仁)학원 삼교련합육상운동회를 오는음오월오일에하리라는데 벌서부터 성황을예기한다고하며 학교당국은준비에분망중이라고한다

關北弓術大會 本報支局後援

【城津】 성진궁술구락부(弓術俱樂部)에서는 단오가절을 리용하야 오는륙, 칠량일간 성진사장에서 제이회관북궁술대회(第二回關北弓術大會)를 본보성진지국후원하에 개최하게되엿는데 상품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等一人 五十圓
二等二人 各二十圓
三等三人 各五圓
四等四人 各一圓

各地端午노리

【古場】 본보고장지국후원으로운산군고장시(雲山郡古場市)시민급연주청년회(延州靑年會)에서는신록이무르녹은 음오월단오가절을리용하여 시민대운동회 추천각희등의대회를 음오월오、륙량일간개최하리라는데시민과청년회원측에서는 그준비에분망중이라는바 주요임원은아래와갓다고한다
會長 白亨道 副會長 徐桂植
會計 金元道 指揮係 申允昌
審判係 李亨稙 朴用實
係 崔允必 金利成 接待係 白
記錄係 金庭浩 李國
以下略

【通川】 강원도 통천군림남면(臨南面)의연성리에서는 오는단오일을 긔회하야 시민대운동회를 본보통천지국후원과 당지시민일동의 주최하에 각희、추천、마라손을성대히 거행하리라는데 준비위원들은 벌서부터준비에분망중이며 일할과 상품은 다음과갓다고한다
◇脚戲之部
日割 陰五月五、六兩日間
◇脚戲之部
賞品 一等=牛一頭 二等=廣木一疋 三等=石油一箱
◇鞦韆之部
一等=眞鍮製食床一個 二等=眞鍮製食器一組 三等=眞鍮製盒一個
◇마라손之部
一等=掛鐘一個 二等=手提鞄一個 三等=雨傘一個

【陽化】 복천군내양화시민주최와 본보양화분국후원으로 오는단오가절을 리용하야 추천운동과각희대회를 각각적당한 상품으로 례년보다 일층성황을 괴하고저 현재임원들은 그준비에 분망중인바 시일장소는 다음과갓다고한다
時日 六月五六日(二日間)
場所 陽化市西松亭

【淮陽】 회양군란곡(淮陽郡蘭谷)에서는 금년에도 례년에의하야 시민주최와 본보회양지국후원으로 음오월사、오、륙삼일간 각희경승、추천、륙상경기등 삼대운동회를 개최한다는데 상품은 농우와 기타다수이며 벌서부터 준비에분망중으로 당일에는공전의 대성황을 예괴한다고

【淸原】 평북의원읍 시민주최(淸原邑市民主催)와위원청년회 금조선동아량지국후원으로 래오월단오가절을리용하야 각희와추천대회를개최한다고하는바 일자는음오월오、륙량일간이고 상품도 다수히준비중인바 일등으로부터 륙등까지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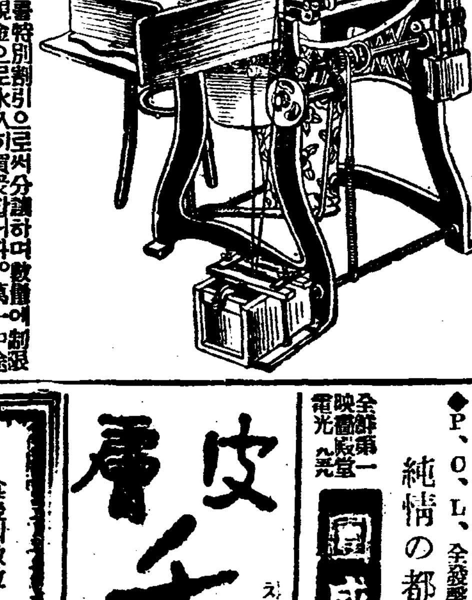
【淸浦】 평북 만포진청년회(靑年會)주최와본보만포지국과동아일보분국후원으로 오는음오월오륙량일간 압록강(鴨綠江)변백사장에서 각희운동회와부인추천대회를 개최한다는데 각희일등에는농우일두 이등에는농우 부인추천일등에는대광목(大光木)이필 이등에위렬동이라한다

【金川】 황해도금천읍에서는 년중행사로 오월단오를 리용하야 금천시민주최와 조선、동아、태동사신문지국후원으로 각희대회와 부인추천대회를 개최한다는데 일반남녀선수의 만흔참가를 바란다하며 시일과장소등은 다음과갓다한다
時日 陰五月五六七三日間
場所 映水屛砂場

【長連】 황해도 은률군장연(殷栗郡長連)상무회에서는 장연소방조급 각신문장연지국후원하에 오는단오절을 리용하야 장연주성루후원에서 각희、추천대회를 개최코저 방금만반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당일상품은 각희부일등에 대우일두 이등에중우일두 삼등에 밍목한필 기타추천에도 상당한상품이 잇스리라한다

그女子의一生
春園 作 夕影 畫 【118】

것은 금봉에게는 더 술을권하지아니하고 자긔만 위스키한 두잔을 떼따라 먹고는 병을다 치우고、여송연 한개를 부러면서、
「용서하세요」
하엿다。
「어서 잡수세요」
하고 금봉도어이업는듯이웃엇다 자긔도 근래에손ㅅ가락이 노라토록 담배를피우게된까닭이엇다。
「그런데」
하고 김은 푸른 연긔가 여러가지 모양의 곡선을 그리면서 피어오르는 여송연을 재터리에 노코 벌떡 일어서더니 책장겨테 노엿던 결은가죽으로된 서류ㅅ가방을 갓다가 재터리를한쪽으로 밀고 펴 노호며、
「오늘 오십시사고 한 뜻은」
하고 사무적 교섭으로 들어간다。
금봉은 김의 이 방향전환에 깜작 놀라리만큼 정신이 들엇다。 마치 꿈의 세계에서 갑작이 깨어난것 가탓다。 금봉은제가 온뜻을 잠깐 잇고 분홍안개속에 둥둥 떠잇섯던것이다。
「내가 어쩌면 이러케 마음을 어노핫을까」
하고 자긔의 몸가짐 말가짐이 처녀ㅅ적과 달리방탕함을 깨달앗다。
「네」
하고 금봉은 얼굴의 근육을수축시키고 김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정신을 집중하엿다。
「다름이아니라、어、손선생에관해서 엿주어볼 말슴도 잇고 또 어 이를테면 부인의 승락을청할것도 잇서서」
하면서 손명규에 관한 서류를 끌라내어놋는다。
「첫재로、무론 내외간이시니까 다 아시겟지마는 이야기의 순서상、옹、손선생의 재산상태를 그야 남의 재산상태를 알수잇습니까마는、손선생의 신용상태──적어도 제가관계하는 한에서는 말슴입니다──의 신용상태에 관해서 먼저 엿줄 말슴이 잇는데──에、일언이페지하면 손선생은 지금 은행거래상으로 보면 중대한 위긔에 계십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길이 깁겟지마는 일언이폐지하면 손형은──에 손선생은 금액만원에 달하는 부정수를 뗀것이 판명되엇습니다。」
하야 부정수를 뗀다는것이 무엇이지를 설명하고나서 연필머리로 데블을 똑똑두드리면서、
「이러한 부정한 수단──그것을 내가 어、제가 발견한것은 벌서 오래지마는 아모조록、네 친구의 뒤를 보아줄양이라고 혀지마는 어듸、무한량으로 그럴수야 잇서요。 그래서 부득이 단호한 처분을 아니할수업는데、그러하자면 내일 오정안으로 손선생이 현금 만원만은 입금을 아니하시면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업습니다。 내 책임도 책임이니까」
하고 한참 금봉을 바라보다가
「부인께서 한 만원 내일 오정안으로 만드실수잇겟습니까」
하고 여송연을 들어서 몃모금 빤다。
「제가 만원이 어듸서 납니까 무엇을 잡히기전에야──집이라도 잡히기전에야」
하고 금봉은 못견딜 수치를 느끼면서 고개를 숙엿다。
「그것이 말슴야요」
하고 김은、사무적인 어조에서 동정을 품은 예사사람의 어조로 변하여서、
「내가 조사시킨바에 의하면말슴야요。 손명규씨 명의에 잇는 재산은 다 은행이나 금융조합이나 또는 사채로 이번상번까지 저당이 되고 더 돈이 나올데가 업습니다。 혹시 부인명의로 잇는 재산이나 잇는지오 무론 잇으시겟지만는」
하고 또 연필장단을 치면서 금봉을 바라본다。
금봉은 더욱、나체 모닥불을 못는듯이 수치를 깨닷는 동시에 손명규가 제 이름으로 옮겨주마하던 재산을 제게는 한마디 알리지도아니하고 다업시 해버린것을 남의 입을 통해서 듯든 분함을 강하게 깨달앗다。
「저는 몰라요」
하는 금봉의 대답은 떨렷다 금봉은 손끗과 발끗이 싸늘하게 식어올라옴을 늣겻다。
「네에」
하고 김은 의외스러운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허、그럼 부인명의로는 재산이 업스십니다그려?」
하고 눈을 감는다



百圓餘의資金으로
副業에紙袋製造
前途有望하고 「收入確實」

都會農村의副業에又는本業에婦女子라도簡單히되는깨끗한일로서紙袋의製造를勸奬합니다。遠地라도通信敎授로써完全히되며弊店에서原紙의供給。製品의引受等絶對確實히年中無休의去來를합니다

弊店特製의製袋機를特別割引으로써分讓하며數量에制限업시되는完成品을現金으로永久히買受합니다。萬一中途에서일이中止되는때에는買受를拒絶하는일은絶對업고 資金을保證하오니 今回弊店의大特典으로 集會에는多數의人員을割引하야 資金을輕減케함 案內書를無料進呈합니다 卽時申込하십시요

大阪市東區玉造木野町十八
丸見屋本店
振替大阪五九三六

筆生
遠近男女의分別업시自宅에서곳되는趣味와實益具備한學生勸人婦女子最適한일 無休永附할高價買上에依賴하시고서로申込乞詳細 通知함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團成社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 九五七
五月二十九日부터 每日三回(午前十一時半 午後三時半 午後七時半)
◆獨逸「도비스」社超大作日本版 파니요르크不朽의傑作映畫化
黑鯨亭
에밀야닝스氏 안제라씨로카 푸란스、니그러치氏主演
近代獨逸이나은文學、劇、映畫의完全融合이된名篇、戀、愁、의極境、朝鮮의女性의幸福을爲하야이한篇映畫를삼가밧칩니다
◆獨逸特作日本版 우리푸리치氏、리나、드、미코라孃主演
카이로의結婚
異國情緒濃厚한明朗篇 카이로의風光、鄕土의音樂과노래
◆P、C、L、全發聲映畫
純情の都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 三八二
五月三十一日낫부터大興行 每日三回正午十二時三時半七時半 映畫史上空前의大巨彈二大名畫
◎파社特作全發聲日本版 封切 람푸마푸이監督
銀鼠流線型
카돌드마이켈 主演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헨리하시쌔이 監督
게리쿠파 후란초트돈 리차드구로무웰 主演
벵가루의槍騎兵
파社가全能力을다한感激의巨篇 製作發表以來五個星霜 出場人員二萬人!! 深紅의長槍은一丈五尺五千의精兵의突擊에的面보라 벵가루의大草原은 飛閃하는槍의激流 故鄕을떠나는 炎熱의山野에그들의帝國을직히는 猛夫의意氣와魂을보라 友情과忠誠의두길의사는벵가루의槍騎兵!!
豫告 朝鮮名畫 無花果 룸바

優美舘
黃金町 電光 二五七
五月三十一日부터特別大封切! 晝夜三回興行!
파라마운트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젠그레이氏原作
白馬王國
헨리、사싸웨이氏監督! 랜돌프스곳드 사리부런 후레드드고라 主演
유社特作全發聲連續大活劇 레이테이라ー氏監督
쌔린의冒險 全十卷第三回解決篇上映
에바린나훠孃 토바드아랜氏 主演
第八篇…謎의寺院 第九篇…幽靈의正體 第十篇…深夜의怪盜 第十一篇…火中의處女 第十二篇…빗나는榮冠
大都映畫社超特作大作篇
映の超特急
鳥人章秀人氏主演

皮膚チヤージ
근질근질한皮膚病 무좀、옴、습진、옻진、여드름 부스럼、버짐、땀띠
一瓶 五十錢、一圓、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食後의數粒!-저런맛! 저리케입이爽快한것! 仁丹아니고는못볼快味!
仁丹
가지신容器를 집어내지말고 用하여주시오 그럼으로經濟的인 德用包를推奬한다
仁丹

クラブ齒磨 值段改正

品名	種類	改正一個小賣正價
一家庭品 クラブ煉齒磨	チューブ入特大	四十六錢
一家庭品 クラブ煉齒磨	チューブ入大	三十錢
一家庭品 クラブ煉齒磨	チューブ入中	十五錢

六月一日부터實施

值段改正謹告

滿天下諸賢의愛用을바든楠公印クラブ齒磨는그藥理的効果와近代的香味에잇서斷然世界的品質을자랑하고잇슬뿐만안이라『良品廉價』의鐵則에依하야恒常最低의價格으로써提供하고(現在他品에比하야一個十錢以上低廉함) 價格改正의件도多大한犧牲을不顧하고참을대로참어왓던바內外諸般情勢는繼續하야各種原料材料의價格이高騰하게된結果드듸여不得已한程度의改正을斷行하게되야當六月一日부터左記와如히即時實施하겟사오니아무조록弊店의微衷을諒察하시고贊成하여주시와倍前愛用과支援을懇願하는바입니다。

昭和十年六月一日
クラブ化粧品 カテイ化粧品 クラブ齒磨 總本店
中山太陽堂

北朝鮮과 東北滿洲 [四]

去益加重하는 經濟的重要性

今年度의各種工事計劃을要約하면
白茂線-白岩-延岩間二十粁
惠山線-白岩-鳳頭間三十粁
滿浦線-熙川-价古間三十粁
因北地方의所謂山地帶로 全地域의約七割面積二百十六萬町步는要存置豫定國有林野가 占하고또林地는朝鮮內第一의 森林資源이루워 蓄積이豐富하야 所謂北朝鮮의豐富한 森林資源으로되어잇는바 從來交通이不便하야 伐出利用은겨우 鴨豆兩江의 水運의便을 有한地域에限하고 其他의大部分은放任하야 枯死하는대로 放任하고一方火田民이燒拂하는 森林도 不少하야 此等諸點에鑑하야 開發計劃에잇서서는于先이利用開發과 保護撫育의方策을 事하야 永久林野의保護育成에努하고잇는模樣이다

그리고 利用開發에對하야서는 于先白頭山麓約八十萬町步의 森林을寶庫一帶七千萬尺締를目標로 拓殖鐵道及惠山線에 連繫하는九線一二三三粁의森林鐵道와 이附帶林道를 山元으로부터 森林鐵道까지二六四粁九의 軌道를敷設하고 또山地에簡易製材工場을建設하기로하고 今年度부터着工하게되엿는바 此施設이完成되는때는 一個年二百餘萬尺締의 伐出을行하야 그收益增加額은 每年二百八十餘萬圓의 巨額에達하리라고보인다

또森林保護에 對하야서는現在 六十餘萬의 火田民을整理하고 이에百一人의 森林主事二百四十二人의 森林主事補를配置하고다시增設하기로되어잇는데 六個所山林保護區署의新設및 六十一個所의山林保護區事務所 新設을 定으로 森林의保護, 火田民의取締, 農法의改善, 副業의普及助成, 高利貸及仲介人의 驅逐, 生業資金의 低利融通, 生活必需品의 購入斡旋, 其他의 生活必需品의 事項에直面하야 所期의目的達成에努力하고잇는現狀이다

그리고 森林經營의 合理化에伴하야 要存置國有林野內에 存在하는多數의 農耕及牧畜適地등은 이를開放處分하기로되어 全林野二百十六萬町步中 三十三萬餘町步는 大體要存置 解除하야도 支障이업는곳으로하야 火田民에對하야 供與할 約十萬町步를除하고 二十萬餘町步는 解放하야 畜耕及牧畜等의企業에對하야 이것을貸付하고 事業이成功하는때에는 이를無償으로讓與하야 殖民興業의資를 圖하기로되어잇다

그리고 그中農耕地는氣候의關係上 大豆水田作에는 不適하나 地味가肥沃하야 開墾後數年間은無肥料로도 耕作이可能하고 牧畜에이만흐며 作物의品質도조타 全朝鮮의田作平均과 原平試驗場의 調査의 本地方의既墾地의 實績을對比하면 如左한데 馬鈴薯는 良質의種薯로서 日本內地方面에서歡迎되고잇는바 또 이를原料로하는 澱粉製造等도有望視되고잇고 一方 大麥、亞麻、甜菜、等의工藝作物도 栽培에適當함으로將來移民의招致와相俟하야 此等農産加工業의 助長發達에關하야서도 各히積極的으로考慮한 必要가잇다고생각된다

種類 全朝鮮平均 本地方實績 比較增
大麥 〇.六三石 一.六六石 〇.六三石
粟 〇.八六〇 一.〇七五 〇.三七
大豆 〇.七〇〇 一.五〇〇 〇.五九
馬鈴薯 一.五四貫 二.五六貫 三.一貫

▲本表는全朝鮮平均及地方의實績모다最近年의一個年平均收穫量으로함

또牧畜適地는 現在野草도豊富하야 緬羊、牛、馬等의牧場經營에適當한바 地域內에는從來의 耕地와混合農業의經營도可能하다 主畜農業又는 混合農業의經營도可能하다 그리고 此等의土地에對하야서는 現在이미數萬町步에及하는 出願이잇서 目下可及的速히分의 進行을圖하야 殖民興業의進展에貢코저 努力하고잇는模樣이다 特히今年開立된 王子製紙系統의 北鮮製紙會社에依하야 滿蒙松等의 林木의利用을圖하야 멀리 北朝鮮의비약을 期待하고잇스리라고보인다 (續)

畢竟佛金本位崩壞直面

內閣總辭職으로 法平價切下도切迫

必死的防止策의不可能으로

各國切下見解에一致

四國事情이 佛國으로서 平價切下치안흘수업는 形勢에 임으렷슴을 不拘하고 프랑당內閣이必死的으로 그防止에 總注力을하여오고 一面으로 財政的獨裁案을 下院에提出하엿스 下院本會議에서도 否決될形勢가 만흠으로畢竟에는 總辭職을 하고말엇다고報한다 이를따하서法貨의 平價切下는 거의確定的事實이라고 傳하며英國을 비롯한各國의見解는一齊히佛國의平價切下에 一致되어잇는것이 더욱겨目을 끌고잇는터이다

"切下外無方道로 一割五分—二割五分"

▲……英國金融界의觀測

【倫敦三十日發聯合】倫敦金融界의見解에依하면佛蘭西政府는結局一割五分乃至 二割五分의 平價切下를 斷行하는外에他途가업스리라한다

切下不可避

爲替의安定이緊要

日本大藏當局所見

【東京電話聯合】 프랑당內閣總辭職의報를接하고 日本大藏省當局은結局 法의平價切下는不可避라고 알에와가티觀測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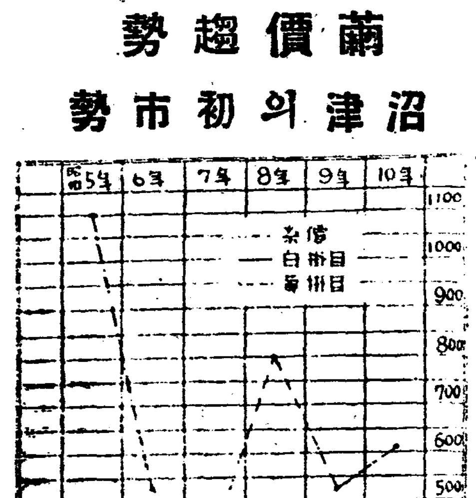
프랑당內閣總辭職이 곳法의平價切下의 前提라고 보는것은 多少早計이나 結局佛國은임을곳까지 아갈수업슬것이다 佛國國民은 前回의一九二六年平價切下에잇서서도 또對爲替危機에對하야도 損失을맛고 農民一般이 債權者의立場에잇는것이 佛國으로하여금 容易히平價切下를 못하게하는理由이엇든바 最近 白耳義가平價切下를 하야意外 平靜을保持하고經濟界도 小康의實情으로보아 佛國政治家의意向이漸次 平價切下斷行에傾할은 事實로 佛國이 此際一割五分乃至五割의 平價切下를 하엿다고하드래도 米國과 英國이 最終的으로 平價를決定치안흔今日임으로 理論的으로效果가 적은것으로생각하는바 一般으로는 白耳義의例로 보드래도 爲替의落潮에압질니서 千先平價를切下하면安定의効果는 充分히 이슬것이다 法貨는 아마 一割五分乃至二割程度로 平價切下를 하야 스페큐레타의攻擊을 千先阻止할方針으로決定할것가티 생각된다 그러고 爲替의安定을 不安定케할은 될수업슴으로어느程度의切下로서 國民의反對를 눌느는同時에 爲替管理의 機構로爲替安定을 圖할것이라고한다 何如間國際爲替의安定에關한協定이 될은容易한일이아닐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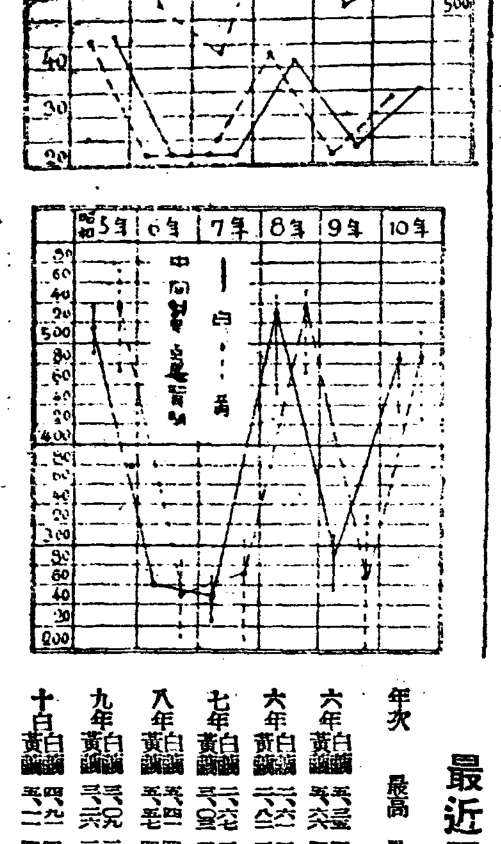
投機業者

彈壓斷行

營業停止命令

【巴里三十日發聯合】佛蘭西政府는 法貨에對하야投機를取締하기에着手하야 金融業者數店에게三十日夜 檢事局으로부터 營業停止를命하얏다





最近五個年과比較

年次		最高	最低	買馴	目掛	出廻高	當日D格市勢
六年	白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年	白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年	白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年	白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年	白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年	白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日間金流失高

五十二億餘萬法

【巴里三十一日發聯合】佛蘭西國立銀行의 金流出高는 三十日로써 終了한 過去六日間에 總額約五十二億五千萬法에 達하얏다

銑鐵共販

問題不拶

日鐵滿鐵衝突?

【電通東京電話】商工省吉野次官은 三十日午後 對滿事務局으로 川越次長을訪問하고 懸案이던日本製鐵會社의 銑鐵共販會社株를滿鐵에도 分讓하는問題에對하야 對滿事務의當局의意向을質한後 滿鐵側으로서 어듸까지던지그主張을 不屈할時는 日鐵으로하야금 獨自의處理를 取케하는 方針이다

近入田副總裁가 東京에오기로하얏스나 다시 協議하야보고저한다라고答하얏고 吉野次官은 日鐵과 滿洲側의 出銑能力으로 率을對爭케할 理由를首肯할수업고 銑鐵國策樹立의 見地로보아도 適切치안타고思한다

라고 商工當局의 見解를 明快히하고 對滿事務局의 決意를促하얏다 그리고이商工省側의 最後的通牒에依하야 所謂共販問題는 依然重大化하야 對滿事務局의 回答保留에依하야 간신다不振狀態인데

出超로轉換

下旬對外貿易

以後一月入超一億八千萬圓

【電通東京電話】大藏省發表Ⅱ五月下旬 對外貿易概算調査는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九七、二一二	
輸入	九一、六七一	
出超	五、五四一	
一月以後入超累計	一八八、〇八九	合計 一八八、八八四

貿易委員會新設

經濟聯盟에서決定

【電通東京電話】經濟聯盟은三十日工業俱樂部에 常任委員會를開하고同委員會에서 通商問題의 研究를提唱하고 새로히貿易委員會를設하야이것을附託하기로 決定하얏다 右는門野重九郞氏를委員長으로하고五名의 委員으로되것으로權能은 日英及日米兩通商協議會에提出할案을作成할것이라한다

奉天端午決濟難

【商通奉天電話】金融狀態가梗塞한대로 舊端午節句의 決濟期에드러간滿人側商店의決濟狀況은도로히 不振狀態인데 銀行側의 融資引締로金融難의傾向을呈하고잇다 그리고 融資를바든銀行에對한債務의決濟를하지못하고擔保로提示한商品을引渡하고잇는狀態인데 各商店모다 相當의回收가非常히납버 沿線側의回收率과가튼것은例年의 一割內外에不過하야아이직方面에도問題가만히決濟期打開는相當히困難한模樣이다

今日財界 (卅一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三等米 一石 … 正租(仁川)改良 在來 … ◆市中小賣 一斗價 … 十圓半錢 …

◆株 (單位圓) 朝新 … 東新 … 日產 … ◆商品 (先限單位圓) 大阪綿絲 … 大阪棉花 … 大阪人絹 … 大阪砂糖 … 고무 現 … 先 …

四月金組

米穀低資

二萬餘圓貸出

金融組合의 四月中米穀應急低利資金貸出金額은 二萬七千三百五十五圓으로 正租及玄米에對하야正租는 二千八百六十九石, 玄米는 三百二十二石인바 그各道別을보면다음과갓다(以下單位圓)

	四月中貸出金額	累年貸出計
京畿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一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江原	一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貸出開始以來 累年計는 一千一百六十二萬七千二百六十四圓인데 同回收高는 九十一萬七千四百八十八圓으로 四月末까지의 未回收額은 百七十萬九千七百九十六圓이라한다

"春繭基準價協定"

生産者、製糸家態度各强硬

結局에는製糸家側이讓步?

二百四十圓의程度

春繭基準價格協定은 總督府斡旋아래 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 總督府第三會議室에서 製絲家代表와各道主任官出席에 하기로되바 日本內地가 二割減收가 確實케되야 原料繭蒐集難이報道됨으로生産者側의態度가强硬하고 一面絲價는 昨日以來 暴落하야 三十一日의平均市勢는 五百八十一圓으로大暴落하엿슴으로 製絲家側의態度도매우强硬케되야 協定은 相當히困難視되다 現在의觀測으로는 日本內地가目下三十四、五掛를唱함으로 만약基準價格이昨年의二百五十圓을踏襲케되면 精繭의 日本內地流出이되은 明白함으로 製絲家로서도 一貫만으로 될수업는 事情이잇서 結局 製絲家側이 讓步하야 二百四十圓程度로 妥協成立될모양이라고한다

沼津繭市勢

【沼津電話商通】沼津兩市場 第四日(三十日)은 出廻가적고黃繭二百七十貫二百六十匁, 白繭七十四貫五百六十匁인데 價格은如左하다

	白繭	黃繭
高價	四、七〇〇	四、六二〇
低價	三、二四〇	三、八七〇
買馴	四、二五八	四、三六四
掛目	三一掛	三一掛

濱松白繭初價

【濱松電話商通】白繭의標準이되는 濱松初取引은 三十日擧行하엿는데 出廻千四百七十六貫으로白繭의 高價四圓二十八錢低價三圓五十二錢、買馴四圓六錢四厘掛目三十一掛로 製絲家의 自重에依하야市況이 穩健하얏다

對外爲替 (五月三十一日)

【東京電話聯合】 東京爲替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十三
	買	二十九弗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三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五

大阪爲替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十三
	買	二十八弗十六分十五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三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五

製煉會社買鑛

六月一日開始

朝鮮製煉會社의 長項製錬所는 一部完成되엇슴으로 六月一日부터 買鑛에着手키로되바 機械選鑛工場은 九月로부터 乾式製鍊工場은 十二月부터 各各開始할豫定이라고

經濟界消息

〇朝新重役會＝朝鮮信託에서는 三十一日午前十一時부터 假決算(五月末締切)에關한 重役會를開하고 下半期의事業計畫等에就하야서도 協議할터인데 業績은大體前期와同樣六分配擬當으로內定하고 六月下旬總會를開催할豫定이라한다

商況 (卅一日)

株式 出超好感 反高

前場低迷

日產中心으로 半恐怖的崩落을演한 前場에入하야도 反撥도업시依然低迷이엇스며 佛內閣總辭로今後佛의金本位問題가 如何히될지를重觀하얏는데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三十錢인 百三十八圓三十錢 日產四十錢低인七十八圓九十錢大引 大新八十九圓丁寄一本朝新配

後場反高

下旬貿易 出超轉換의 好感으로 買氣를呼하야 東新 四十圓七十錢 日產八十圓 四十錢 大新九十圓七十錢 朝新 二十五圓八十錢에 好勢裡後東新百三十九圓六十錢 大新九十圓四十錢 日產八十圓二十錢 朝新二十五圓九十錢大引

◆東新 …(引) ◆日產 …(引)

戾待로賣警戒

佛內閣總辭重視

金本位離脫이냐 保持냐를 압헤두고 佛蘭西프랑당內閣은 畢竟離局을收拾치못하고 總辭職을斷行하얏는데 金融業界의觀測과가티 一割五分乃至 二割五分의平價切下를할지 今後果然떠할지 氣迷가一層深刻하다 今前場當地는 日產이 反이다 今前場當地는 日產이 下限할만큼 甚할것으로 新低價를 唱하야 七十八圓五十錢으로 또 新低價를 寄付이고東新도 低迷이엇든데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新規取引이업스하나 價位는그로 買氣되어 市況이大體堅調이다

▲甲五分利 一〇三、七五▲一回四分利 不申▲二回四分利 不申▲佛貨四分利 不申

賣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二十枚

日產	一八	大回	七一、五四〇
東新	四六	四九	一二、三三〇
大新	三三	六〇	九四、九三〇

△人造肥料五百△同新…△川崎…△宇治電…△滿洲電…△昭和肥料…△德山曹達…△大同電力…△金動…△同新…

期米 堅調裡에 納會

米國各市場休會

米國各市場은南北戰爭紀念日로三十日休會이엇다

前場底堅

昨後場 阪地二十九圓二十一錢止와 共히二十七圓十四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三十錢인 九丁高를 掉하고二十七圓十錢인 四丁反落으로 場을始한後 阪地二十一、二錢으로反落함을 伴하야 〇四、五錢까지下押하더니 結局阪地二十九錢으로反騰止揚함을따라 十二錢에 場을止하엿다

人心安定尙遠

內外不安不去

人平氣配이 小康을得한 行進市勢가 停頓되어 反動에入하야 앞으로의 陰險陰轉이 容易치 아니할 것가모양이오 目前佛國內金本位問題를압두고 危懼의念이不去 買惜인데 減配와下期減收豫想하야 이미 一二十錢까지下半에 達하니 今後一層 深刻한 反動에 入하면 二十丁以下에 一반반 程度의 反撥에 不過하다 上의 稍下이어던만큼 來月初의 月初 高價에 比하야 二十圓以下로 撥想하는 傾向도 不無하나 今으로 日產에 對한 人氣는 總悲觀으로 稍하야도 低價까지 비어나 十丁 十七 二十七圓五十錢으로 또 新低價를 寄付이고 東新도 低迷이엇든데 二十七圓五十錢으로 今後 一般反撥이잇슬가바이것을 怯내어 賣警戒하는 程度에 不過하엿다

日中關係의 惡化를 비롯하야 佛國金本位動向、米國니라 政策動向、內閣審議會形勢等 內外關心事가크게橫在하고잇는만큼 한달동안 내리며내려지나서도 人心安定에는 至難한 狀態이엇다 그러나 日을 要할것으로서 期의 實績을 展望하라면 相當한 時日을 要할 것이다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月末掉尾一振

賣過의反動?

昨前場은當限의 納會와共히 阪地二十九圓을割破하고 常地는 二十七圓을 割破하야 形勢가자못惡化하더니 後場부터 買氣 依然 勃發하야 今朝에入하기까지 三十丁內外의 急反撥을 示하엿다 그原因의 所在를 察하면 堂島와 如한 市場은 軟派의 賣物이 續出하나 그러나 正米의 市勢가 堅强하고 또受渡의 買物이 依然 現出함으로써 이다 그러고 賣過反動의 感도 업지아니함으로 騰勢는 此邊에서 一息되어 月末掉尾一振의 行動을 一巡하고말엇다 그런데 中限戰에入한後의 形勢가 如何히 展開될것을 一考하면 政府에서 拂下한 남어지 古米

各地期米後場例休

各地期米市場은 當限受渡後로 三十日 後場 例休이다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 東京側、朝鮮側、地場正米側、齋藤側
買方 潮岐、乘換、田中貞、永岡利喚、地場、海堀、神戶側

各地新甫氣配

意外에下鞘說

第一日에發會된 新甫는 八限이 되니 도 三十丁上 뛰도 될수 있스나 그러나 堂島市場으로부터 意外一二十下鞘로 發會될 것이라는 豫說이 잇다 그原因을 調査한 바에 依하면 今回政府에서 四十餘萬石을 拂下하지 않을수업슬 이라한다 그理由는 政府로부터 百萬石을 來米穀年度에까지 하기로 發表하는 바도잇거니와 豐作의 蓬萊米가 來六月부터 移入이 旺盛하야 正米期에 非常한 威脅을 加할이라는 豫測으로 軟派가 絶對高價를 放任視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加味한 모양이다 果然 二三十丁上 朝로 發會될 限米로서 反히 一、二十丁下 朝 會說에는 疑問을 뭇지 안흘 수 업다 그럼으로 昨年度 八限의 一丁上 鞘이엇슴을 보아 各地 共히 同鞘 나 或은 薄上鞘로 發會될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鞘豫想

各地新甫鞘는 모다 如左히下鞘豫想이다 ▲大阪一二十丁▲下關二、三十丁▲東京二十丁 大邱、群山、鎭南浦、仁川、東、神戶、釜山、名古屋이 모다 十丁

▲木浦鎭南浦는 無鞘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強 全定期의 小高를 影響하야 氣配 十錢引 締이나 買方은 常用精米側에 限定되고 無活氣인 場面이엇다 丸仁三等二十六圓八十錢 四等二十六圓六十錢 一等白米二十圓丁

仁川小堅 今朝正期의 安定模樣으로 氣配 十錢高의 小堅이나 場面閑散 買物 薄으로 取引이 閑散되고 活況에 急한 商狀인 丸仁三等二十六圓八十錢 四等二十六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五十五錢

釜山一息 市場閑物 三千叺으로 거의 食入物이나 奧地 禁高 唱으로 氣配는 依然 底堅한 形勢이고 精米側의 必需의 準備 中이란 一般으로 買氣가 薄하고 九一四叺의 賣行에 終하얏다 丸三等二十七圓七十錢 四等二十七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六錢

大邱小高 當用必需品의 注文이 잇스나 價位關係 探으로 上商談이 不捗하고 閉況場面이 나마 振度의 賣物 으로 氣配 十錢 高唱인 丸三等 二十七圓丁 四等二十六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三十五錢

群山引締 出廻 九輛, 大農側은 今後의 植付狀況을 注視하고 傍觀하며 一般으로 來月待의 人氣이나 移出側의 移出向新規理 備가 잇서 氣配 二十錢 引締인 三等二十七圓三十錢 四等二十七圓 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木浦閑況 産地의 賣物은 依然히 적으나 期米의 小浮動과 月末關係로 買氣가 減殺되어 一般으로 動機待이며 閑況場面인 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浦 消 舍 一般으로 來月을 期待하고 極度로 傍觀함으로 取引

大阪四市場例休

大阪綿絲、棉花、人絹、砂糖의 四市場은 當限受渡로 三十一日前後場共히 例休이다

▲煙草製造豫定數量

【專賣局發表】六月煙草製造豫定數量은 兩切合計四億二千七百四十七萬本 口付合計千六百萬本、細刻合計二千二百九十七斤 荒刻合計百三十九萬九千六百五十斤이라고

小林幹三商店
米期 株式
仁川本町三 京城明治町一

金銀 高價買入
金地金 分析 銀 賣買
京城府南大門通一ノ二七
合名會社 京城產金商會
電話本局二七四四・振替京城三四三番

金融 卅一日

◆朝鮮銀行勢◆ 30日
◆日本銀行勢◆ 30日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價入價◆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京城雜穀◆
◆仁川大豆◆

米穀 卅一日

商品 卅一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日本麥粉市勢◆
◆大豆期貨◆
◆錢油冲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鰯搾粕冲價◆

株式 卅一日

◆朝取定期賣買高◆ 合計 累計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朝取短期◆
◆鎮定武引◆
◆大阪短期◆
◆大阪長期◆

期米 卅一日

◆朝鮮內各地期米◆ 前場 釜山 大邱 群山 木浦 鎭南浦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賣方 買方 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日本內地 朝鮮 台灣
◆新販期米◆
◆月末現在米賣買高◆

商品 卅一日

◆横濱生糸◆
◆海外砂糖◆